

WEBVTT

00:00:10.505 --> 00:00:12.713
이제 우리 2강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12.813 --> 00:00:14.114
음운편이고요.

00:00:14.214 --> 00:00:20.757
국어에서 음운 변동 쪽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.

00:00:20.857 --> 00:00:24.314
그래서 음운론이라는 거는 말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

00:00:24.414 --> 00:00:28.002
말 소리 파트가 2강하고 3강까지면 딱 끝이 나요.

00:00:28.102 --> 00:00:30.960
그다음에는 품사 단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

00:00:31.060 --> 00:00:34.100
2, 3강이 조금 독립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
00:00:34.200 --> 00:00:36.013
그런데 3강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

00:00:36.113 --> 00:00:38.423
2강 음운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쌓고

00:00:38.523 --> 00:00:41.640
오늘 표 몇 개를 볼 건데 그 표에 나와있는 자음 체계,

00:00:41.740 --> 00:00:44.127
그다음에 모음 체계 이거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.

00:00:44.227 --> 00:00:48.307
그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음운 변동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

00:00:48.407 --> 00:00:53.298
그러면 이제 음운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볼 텐데,

00:00:53.398 --> 00:00:57.123
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음운이라는 것은

00:00:57.223 --> 00:01:02.572
음성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음향하고도 차이가 있어요.

00:01:02.672 --> 00:01:08.901

일단 음향 같은 경우에는
이런 소리 지금 음향이에요.

00:01:09.001 --> 00:01:10.319
자동차 소리가 난다든지

00:01:10.419 --> 00:01:12.084
여러분 지금 들리는지 모르겠네요.

00:01:12.184 --> 00:01:15.912
저는 빔을 쬔기 때문에
빔 소리가 들리는데

00:01:16.012 --> 00:01:17.615
여러분 귀에는 안 들어가겠죠.

00:01:17.715 --> 00:01:20.318
기계음 같은 거요.

00:01:20.418 --> 00:01:23.241
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향적
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
00:01:23.341 --> 00:01:35.160
이거는 사람의 말 소리를 제외한
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01:35.260 --> 00:01:37.746
그러면 애는 국어에서
다룰 게 아니죠.

00:01:37.846 --> 00:01:41.979
이거는 어디에서 다뤄야
되냐면 물리학에서.

00:01:42.079 --> 00:01:46.158
기계, 음향 가지고 음향학.

00:01:46.258 --> 00:01:48.860
이런 음향학은 국어에서
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.

00:01:48.960 --> 00:01:52.947
그래서 음향의 영역은 우리와 상관이
없고, 국어에서 상관이 없고.

00:01:53.047 --> 00:01:58.233
우리가 다뤄는 되는
거는 음성과 음운인데.

00:01:58.333 --> 00:02:05.276
음성도 사실 국어에서 다루기는
하지만 확실치는 않아요.

00:02:05.376 --> 00:02:08.342
물리하고 조합을 하셔야
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.

00:02:08.442 --> 00:02:14.580
선생님이 대학 때
국어국문학을 나왔는데,

00:02:14.680 --> 00:02:17.040

거기에 여러 가지
국어학적 지식을 배우면서

00:02:17.140 --> 00:02:20.587

그중에서 음운론과 관련된
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.

00:02:20.687 --> 00:02:23.563

그런데 그때 음성판독기라는
거를 처음 봤었거든요.

00:02:23.663 --> 00:02:26.876

굉장히 고가의 판독기인데
되게 신기했어요.

00:02:26.976 --> 00:02:32.300

거기에서 한 장의 글 같은
거를 마이크를 잡고 읽으면

00:02:32.400 --> 00:02:36.770

그거를 딱 판독하더니
지역이 어디시네요?

00:02:36.870 --> 00:02:38.234

이런 이야기를 해요.

00:02:38.334 --> 00:02:40.837

선생님은 원래 영등포에서
태어났기 때문에

00:02:40.937 --> 00:02:42.081

계속 서울에서 자랐거든요.

00:02:42.181 --> 00:02:45.408

그래서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말을
당연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,

00:02:45.508 --> 00:02:48.443

지방에서 왔던 친구들 같은
경우는 정확하게 짚어냅니다.

00:02:48.543 --> 00:02:52.771

어디 울산 쪽, 경남 쪽.

00:02:52.871 --> 00:02:56.667

저희가 들었을 때는
별로 티나지 않거든요.

00:02:56.767 --> 00:03:00.230

몰랐어요, 몰랐는데 여기
기계에서 판독이 나온다고.

00:03:00.330 --> 00:03:02.308

그러니까 그 억양이나
이런 부분들에서

00:03:02.408 --> 00:03:05.872

음성에서 이미 그런 지역성이
나타나는 거를 알려주더라고요.

00:03:05.972 --> 00:03:07.479

그래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

00:03:07.579 --> 00:03:09.975

선생님 같은 경우도
당연히 서울 태생이니까

00:03:10.075 --> 00:03:13.822

서울말을 잘 쓰고 있고 구사할
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

00:03:13.922 --> 00:03:15.856

서울 사람 맞다는 거예요.

00:03:15.956 --> 00:03:22.044

그런데 부모님 쪽에서 충청도,
경상도의 억양이 있는 것 같다고.

00:03:22.144 --> 00:03:25.349

맞거든요, 아버지 쪽이 충청도고

00:03:25.449 --> 00:03:28.719

어머니 쪽 같은 경우는 경남이니까
되니까 신기한 거예요.

00:03:28.819 --> 00:03:35.628

음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
핸드폰 같은 경우에도

00:03:35.728 --> 00:03:39.883

음성으로 인식해서 자기 거 확인하는
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

00:03:39.983 --> 00:03:45.999

음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
구체적인 소리예요.

00:03:46.099 --> 00:03:52.245

그리고 실제적인 소리고,
개별적인 소리고.

00:03:52.345 --> 00:04:05.618

밥 먹었어? 라는 문장을 개별
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면

00:04:05.718 --> 00:04:11.267

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목이
메었는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잖아요.

00:04:11.367 --> 00:04:13.474

하이톤인지 낮은 톤인지
다 알 수 있거든요.

00:04:13.574 --> 00:04:17.143

그래서 이거를 밥 먹었어?
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

00:04:17.243 --> 00:04:19.451

우리는 이 음성이라는
거를 따졌을 때는

00:04:19.551 --> 00:04:21.986
각 사람이 말하는 구체적인 소리요,

00:04:22.086 --> 00:04:23.754
각 사람들이 말하는
개별적인 소리다.

00:04:23.854 --> 00:04:27.101
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어에서
배워야 되는 것들은

00:04:27.201 --> 00:04:29.519
이런 음성적인 측면을
배우려는 거는 아닙니다.

00:04:29.619 --> 00:04:33.090
포괄적인 거, 보편적인 것
또는 추상적인 표현을

00:04:33.190 --> 00:04:38.754
좀 공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4:38.854 --> 00:04:43.558
그래서 우리는 보편성을 가지고
있는 음운을 공부하겠다는 건데

00:04:43.658 --> 00:04:46.124
음운의 정의는 이렇게
정의가 됩니다.

00:04:46.224 --> 00:04:49.915
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 주는
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.

00:04:50.015 --> 00:04:51.021
다시요.

00:04:51.121 --> 00:04:56.311
말의 뜻을 구별하게 해 주는
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.

00:05:11.801 --> 00:05:13.845
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볼게요.

00:05:21.225 --> 00:05:25.915
지금 이 두 어휘를 통해서
비율 여러 번 써봤어요.

00:05:26.015 --> 00:05:27.557
초성에도 있고.

00:05:27.657 --> 00:05:29.451
초성, 중성, 종성의 개념은 알죠?

00:05:29.551 --> 00:05:31.792
초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, 모음.

00:05:31.892 --> 00:05:32.933
그다음에 종성이 있고.

00:05:33.033 --> 00:05:34.437

여기도 초성, 중성

00:05:34.537 --> 00:05:37.058

그리고 초성 중성으로
이루어져있는 2음절짜리인데.

00:05:37.158 --> 00:05:39.138

ㅂ을 지금 여러 위치에
넣었던 말이에요.

00:05:39.238 --> 00:05:43.308

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나와있는
ㅂ하고 밑에 있는 ㅂ하고

00:05:43.408 --> 00:05:44.510

자리를 바꿨어요.

00:05:44.610 --> 00:05:46.837

그리고 이 ㅂ하고 이
ㅂ하고 자리를 바꿨어.

00:05:46.937 --> 00:05:49.148

그러면 뜻이 달라집니까?

00:05:49.248 --> 00:05:50.390

그렇지 않죠.

00:05:50.490 --> 00:05:54.073

그 이야기는 음운이라는 것은

00:05:54.173 --> 00:05:57.589

여기에 있는 ㅂ하고
여기에 있는 이 ㅂ하고

00:05:57.689 --> 00:06:01.584

받침에 있는 ㅂ하고 다 똑같은
ㅂ이라고 생각을 해요.

00:06:01.684 --> 00:06:08.755

그러니까 이 3개는
음운은 하나예요.

00:06:08.855 --> 00:06:10.126
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?

00:06:10.226 --> 00:06:12.302

음운은 하나라고 볼 게 아니라

00:06:12.402 --> 00:06:18.979

동일한 음운을 사용하고
있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06:19.079 --> 00:06:21.426

같은 음운이에요.

00:06:21.526 --> 00:06:23.450

그런데 여러분, 이게
음성적으로 접근하잖아요?

00:06:23.550 --> 00:06:25.529

그러면 사실 달라요.

00:06:25.629 --> 00:06:29.498

여러분, 이거 밥 할 때
처음에 밥을 발음하려고 하면

00:06:29.598 --> 00:06:34.907

입을 오므렸다 밥, 밥,
밥 터뜨려야 됩니다.

00:06:35.007 --> 00:06:37.285

그래서 음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

00:06:37.385 --> 00:06:39.058

애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.

00:06:39.158 --> 00:06:41.168

터지는 소리가 나옵니다.

00:06:41.268 --> 00:06:45.061

그런데 여기에 있는 소리를 보면

00:06:45.161 --> 00:06:48.573

이미 바, 할 때 이미 아
하고 입이 열렸어요.

00:06:48.673 --> 00:06:51.912

그다음에 오라는 이 모음.

00:06:52.012 --> 00:06:54.551

아와 오, 이거 전부 다
입이 열린 상태죠?

00:06:54.651 --> 00:06:58.382

이미 열려있는 상태이고
애네들은 자연스럽게

00:06:58.482 --> 00:07:02.909

여기에 있는 성대를 떨리게 하는
부드럽게 나오게 하는 유성음이거든요.

00:07:03.009 --> 00:07:05.077

그래서 울리잖아요.

00:07:05.177 --> 00:07:07.297

울리게 만들어주는 유성음인데,

00:07:07.397 --> 00:07:11.924

유성음 사이에 있는 비은 초성에
나와있는 이 비에 비해서

00:07:12.024 --> 00:07:15.033

소리가 되게 부드러워요.

00:07:15.133 --> 00:07:18.863

음성적으로 접근하면 b,
발음이 나온다는 겁니다.

00:07:18.963 --> 00:07:21.765

그래서 어떻게 되냐면
터질 때는 바,

00:07:21.865 --> 00:07:23.292
애는 바 하고 터지는데

00:07:23.392 --> 00:07:26.781
바보, 바보, 바보 이럴 때

00:07:26.881 --> 00:07:31.790
앞에 있는 1음절짜리에서의
ㅂ은 터지는 소리였다가

00:07:31.890 --> 00:07:35.980
여기에 있는 ㅂ은
터지는 게 세지 않고

00:07:36.080 --> 00:07:38.889
부드럽게 나오는 ㅂ이
나온다는 겁니다.

00:07:38.989 --> 00:07:41.150
그래서 은근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

00:07:41.250 --> 00:07:45.818
바보, 바보라고 했을 때
초성에 있는 이 글자와

00:07:45.918 --> 00:07:49.620
2음절에 나와있는 초성의 글자를
동일하게 쓰면 의아해해요.

00:07:49.720 --> 00:07:52.205
어? 소리가 다른데 왜
같은 글자를 쓰지?

00:07:52.305 --> 00:07:54.334
그러면 한국인들은 오히려
그게 왜 이상해?

00:07:54.434 --> 00:07:55.687
같은 소리 아니야?

00:07:55.787 --> 00:07:57.801
여러분, 정말 같아요?

00:07:57.901 --> 00:08:02.028
이거 어떤지 아세요?

00:08:02.128 --> 00:08:06.067
밥, 밥 할 때 입을
터뜨려야 되는 거죠.

00:08:06.167 --> 00:08:10.253
그런데 애는 밥, 안
터뜨리고 묶어주잖아요.

00:08:10.353 --> 00:08:12.045
다물어버려요.

00:08:12.145 --> 00:08:15.127
그러면 애는 초성에 있는 이
ㅂ하고 종성에 있는 ㅂ하고

00:08:15.227 --> 00:08:16.597
소리가 같다고요?

00:08:16.697 --> 00:08:19.257
밥, 밥 하고 닫아버리는데?

00:08:19.357 --> 00:08:20.857
터뜨려야죠.

00:08:20.957 --> 00:08:26.099
터뜨려야 되는 건데 안 터뜨리고
밥 하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.

00:08:26.199 --> 00:08:29.684
그래서 애는 받침에 있을 때는
또 음성 기호로 따지게 되면

00:08:29.784 --> 00:08:31.579
이런 음성 기호를 잡아주거든요.

00:08:31.679 --> 00:08:34.186
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
이렇게 위치에 따라서

00:08:34.286 --> 00:08:37.676
ㅂ이 여러 가지 다른
음을 가지고 있어요.

00:08:37.776 --> 00:08:41.377
그런데 그 다른 음을 가지고 있는
거는 변위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

00:08:41.477 --> 00:08:43.608
그거는 음성에서나 따지는 거예요.

00:08:43.708 --> 00:08:45.880
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따졌을 때는

00:08:45.980 --> 00:08:48.876
초성이나 중성이나 또는
유성음 사이에 있는 거나

00:08:48.976 --> 00:08:51.067
다 다른 소리가 나는 거는 맞아.

00:08:51.167 --> 00:08:56.152
그런데 우리 국어 화자들은
그렇게 인지하지 못해요.

00:08:56.252 --> 00:09:00.525
그리고 이 ㅂ이랑 이
ㅂ이랑 이 ㅂ이랑

00:09:00.625 --> 00:09:03.127
바꿔준다고 해서 뜻이
구별되는 것도 아닌데.

00:09:03.227 --> 00:09:06.096
그러면 애네는 같은 음운이지,
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

00:09:06.196 --> 00:09:10.254

그런데 만약에 제가,

00:09:14.922 --> 00:09:17.514

뭐로 같까요?

00:09:17.614 --> 00:09:18.673

그래요, 이렇게 합시다.

00:09:18.773 --> 00:09:20.202

호박할 때 박이요.

00:09:20.302 --> 00:09:27.372

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ㅂ하고

00:09:27.472 --> 00:09:32.266

여기에 나와있는 ㄱ하고는 달라졌죠.

00:09:32.366 --> 00:09:33.422

소리 당연히 다르죠?

00:09:33.522 --> 00:09:34.428

밥.

00:09:34.528 --> 00:09:35.518

그리고 박.

00:09:35.618 --> 00:09:36.943

소리가 다릅니다.

00:09:37.043 --> 00:09:39.837

소리만 다를 뿐만 아니라

또 뭐도 다른 거예요?

00:09:39.937 --> 00:09:42.049

분명 뜻이 달라졌다는

거를 알 수 있어요.

00:09:42.149 --> 00:09:45.321

밥은 먹는 거고 박은 동그란

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.

00:09:45.421 --> 00:09:48.033

그러니까 애네 둘은,

이 ㅂ하고 ㄱ은

00:09:48.133 --> 00:09:52.384

말의 뜻을 구별해줄 수 있는 소리의

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죠.

00:09:52.484 --> 00:09:55.795

ㄱ이라는 소리를 다시 한 번 더

쫓갤 수는 없단 말이에요.

00:09:55.895 --> 00:09:57.340

애는 지금 소리를 쫓개야 되면

00:09:57.440 --> 00:09:59.632

ㅂ에 ㅊ 붙으면 바가 되고

00:09:59.732 --> 00:10:01.891

받침 붙이면 박 하면서
점점점 늘어나는,

00:10:01.991 --> 00:10:04.082

그래서 애네들이 조합이
되는 것들인데

00:10:04.182 --> 00:10:10.443

그중에서 최소 단위인 이 바를
ㄱ으로 바꿔줬더니 뜻이 달라졌다?

00:10:10.543 --> 00:10:12.257

그러면 애는 음운이 된다는 겁니다.

00:10:12.357 --> 00:10:16.318

우리가 공부해야 될 음운이라는 것은

00:10:16.418 --> 00:10:21.242

개별적인 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
추상적인 소리를 따지게 되는 거고요.

00:10:21.342 --> 00:10:24.377

여러분,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

00:10:24.477 --> 00:10:27.445

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 잘한
친구들, 열심히 한 친구들은

00:10:27.545 --> 00:10:29.683

형태소의 개념을 좀
기억을 할 거예요.

00:10:29.783 --> 00:10:33.366

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
있는 최소 단위 아니냐.

00:10:33.466 --> 00:10:35.244

개량 무슨 차이냐.

00:10:35.344 --> 00:10:41.745

형태소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
최소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

00:10:41.845 --> 00:10:44.485

애는 소리의 단위예요.

00:10:44.585 --> 00:10:50.660

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
형태가 아니라 소리에요.

00:10:50.760 --> 00:10:54.287

여기 지금 말이라는
단어가 있습니다.

00:10:54.387 --> 00:10:59.756

이 말이라는 단어는 ㅁ,
ㅌ, ㄹ을 조합해서 만들어낸

00:10:59.856 --> 00:11:02.898

하나의 음절 단위예요.

00:11:02.998 --> 00:11:05.698
말, 말, 말.

00:11:05.798 --> 00:11:07.541
뜻도 있죠.

00:11:07.641 --> 00:11:11.560
그런데 이 단어를 초성을
한번 교체해보도록 할게요.

00:11:11.660 --> 00:11:15.002
초성을 교체해서 다른 단어
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

00:11:15.102 --> 00:11:16.934
다른 소리가 나오면서.

00:11:17.034 --> 00:11:19.610
어떤 게 있을까요?

00:11:19.710 --> 00:11:24.088
날, 있겠네요.

00:11:24.188 --> 00:11:27.996
또 뭐 있을까요? 살도 있겠네요.

00:11:28.096 --> 00:11:31.324
발도 있겠네요.

00:11:31.424 --> 00:11:33.848
팔도 있겠네요.

00:11:33.948 --> 00:11:36.901
칼도 있겠고요.

00:11:37.001 --> 00:11:39.351
딸도 있겠고요.

00:11:39.451 --> 00:11:41.383
달도 있겠고, 쌀도 있겠고요.

00:11:41.483 --> 00:11:43.043
이런 식인 거죠.

00:11:43.143 --> 00:11:47.696
지금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
말에서의 초성인 ㅁ을 바꿔서

00:11:47.796 --> 00:11:51.782
ㄴ, ㅅ, ㅈ, ㅊ, ㅋ,
ㅌ, 그다음에 ㅍ.

00:11:51.882 --> 00:11:54.909
이런 것들로 교체했더니
뜻이 구별돼.

00:11:55.009 --> 00:11:56.507
맞아요, 뜻이 구별되죠.

00:11:56.607 --> 00:12:02.230

그러면 뜻을 구별하게 해주는
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뭐죠?

00:12:02.330 --> 00:12:08.475

ㅁ, ㅅ, ㅈ,
ㅋ, ㅍ, ㅊ, ㅌ, ㄴ

00:12:08.575 --> 00:12:09.714

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.

00:12:09.814 --> 00:12:12.318

그러면 애네들은 다 뭐가 된다?
음운이에요.

00:12:12.418 --> 00:12:15.154

왜? 이거 하나만 바꿔치기를
해서 뜻이 달라졌으니까

00:12:15.254 --> 00:12:18.467

이 ㅁ, ㅅ 이런 것들이
전부 다 음운이구나.

00:12:18.567 --> 00:12:20.153

이 정의에 맞는 거죠.

00:12:20.253 --> 00:12:21.748

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.

00:12:21.848 --> 00:12:24.351

더 있어요, 그렇죠? 쪽
더 적을 수 있을 텐데.

00:12:24.451 --> 00:12:32.445

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을
생각했다면 여기가 문제가 돼요.

00:12:32.545 --> 00:12:33.982

밑에 보이죠?

00:12:34.082 --> 00:12:36.824

초성에 있는 ㅇ은 음가가 없다.

00:12:36.924 --> 00:12:39.541

초성에 있는 ㅇ은 음가가 없다.

00:12:39.641 --> 00:12:44.147

이거 여러분이 발음하면
어떻게 해야 되죠?

00:12:44.247 --> 00:12:45.984

아, 라고 발음하면 됩니다.

00:12:46.084 --> 00:12:47.786

그러면 애는 발음 어떻게 합니까?

00:12:47.886 --> 00:12:50.065

역시나 아, 라고 발음하면 되겠죠.

00:12:50.165 --> 00:12:53.296

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
있는 ㅇ이 덧붙여져서

00:12:53.396 --> 00:12:55.075

소리가 달라지지
않았다는 이야기에요.

00:12:55.175 --> 00:12:58.399

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해주면
가, 하면서 달라지잖아요?

00:12:58.499 --> 00:13:00.172

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도 아요,

00:13:00.272 --> 00:13:02.390

이렇게 했을 때 아라고 하는 것은

00:13:02.490 --> 00:13:05.902

초성에 나와있는 첫
소리에 나와있는 ㅇ은

00:13:06.002 --> 00:13:10.549

형태적으로 허전하니까
넣어주는 거지 음가,

00:13:10.649 --> 00:13:13.350

소리 값이라는 게
전혀 없다는 겁니다.

00:13:13.450 --> 00:13:16.731

따라서 우리는 지금
뜻을 구별하게 해주는

00:13:16.831 --> 00:13:19.478

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
물어본 거기 때문에

00:13:19.578 --> 00:13:23.837

음운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.

00:13:23.937 --> 00:13:26.391

초성에 있는 ㅇ은 없는 거예요.

00:13:26.491 --> 00:13:28.282

받침은 괜찮아요.

00:13:28.382 --> 00:13:33.189

가령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
단어에 받침을 한번 바꿔볼게요.

00:13:33.289 --> 00:13:36.420

ㄹ이었는데 초성과 중성은
유지한 상태로 받침을 바꾸면

00:13:36.520 --> 00:13:38.076

어떤 단어가 있을까요?

00:13:38.176 --> 00:13:41.515

떠오르는 거는 막, 막을
내렸다 할 때 막.

00:13:41.615 --> 00:13:44.718

그다음에 그물망 할 때의 망.

00:13:44.818 --> 00:13:46.704

이런 것들, 망을 봐라 할 때 망.

00:13:46.804 --> 00:13:47.994

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.

00:13:48.094 --> 00:13:49.150

그러면 지금 보세요.

00:13:49.250 --> 00:13:53.346

이 초성하고 중성에 나와있는
ㅁ, ㅏ는 유지를 했는데

00:13:53.446 --> 00:13:55.465

받침에 있는 거를 ㄹ에서 ㄱ,

00:13:55.565 --> 00:13:58.531

ㄹ에서 ㅇ으로 바뀌봤더니
뜻이 달라졌잖아요.

00:13:58.631 --> 00:14:01.004

그러면 ㄹ이나 ㄱ이나 ㅇ이나

00:14:01.104 --> 00:14:06.837

이런 것들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
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

00:14:06.937 --> 00:14:10.136

이거는 음운으로 또
인정할 수 있는 거죠.

00:14:10.236 --> 00:14:12.618

이때 ㅇ은 당당하게
음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.

00:14:12.718 --> 00:14:17.785

왜냐? 없을 때는 마요, 있을 때는
망 하면서 소리가 달라지니까요.

00:14:17.885 --> 00:14:21.493

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
음운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.

00:14:21.593 --> 00:14:24.804

이런 방식으로 굳이 말이라는
단어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

00:14:24.904 --> 00:14:28.206

어떤 단어를 넣어도 그
자리에 초성이나 중성이나

00:14:28.306 --> 00:14:32.508

또는 중성을 바꿔서 단어가
달라지면, 뜻이 달라진다면

00:14:32.608 --> 00:14:34.060

개네들은 음운이 됩니다.

00:14:34.160 --> 00:14:35.325

이번에는 중성 한번 바꿔볼게요.

00:14:35.425 --> 00:14:40.265
중성에서는 ㅏ, 모음이 있는데 이
모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.

00:14:40.365 --> 00:14:41.982
모음을 찾을 수 있겠네요,
어떤 것이 있을까요?

00:14:42.082 --> 00:14:45.095
밑 같은 거 있겠네요.

00:14:45.195 --> 00:14:48.533
그 다음에 물, 이런
단어를 생각해본다면

00:14:48.633 --> 00:14:53.397
ㅏ라는 중성의 모음이 ㅣ나,
또는 ㅓ로 바뀌었을 때

00:14:53.497 --> 00:14:55.136
역시나 단어의 뜻이 달라졌다.

00:14:55.236 --> 00:14:59.378
그러면 이때의 ㅣ, ㅓ, ㅏ
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?

00:14:59.478 --> 00:15:01.596
음운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5:01.696 --> 00:15:07.110
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.

00:15:10.448 --> 00:15:15.036
이 단어의 음운은 몇 개입니까?

00:15:15.136 --> 00:15:18.395
이 단어의 음운은 몇 개인가요?

00:15:18.495 --> 00:15:22.381
이게 지금 정의예요,
이게 사전적 정의거든요.

00:15:22.481 --> 00:15:25.611
그러면 이 사전적 정의에
맞게끔 설명을 해준다면

00:15:25.711 --> 00:15:27.436
애네는 소리가 없는 거죠.

00:15:27.536 --> 00:15:30.282
그러니까 음운은 몇
개로 봐야 되느냐?

00:15:30.382 --> 00:15:35.443
하나, 둘 해서
2개라고 봐야 돼요.

00:15:35.543 --> 00:15:36.951
맞습니까?

00:15:37.051 --> 00:15:43.910

그러면 값, 애는
음운이 몇 개입니까?

00:15:44.010 --> 00:15:47.920

3개라고 해야 됩니다.

00:15:48.020 --> 00:15:54.104

왜냐? ㄱ, ㄷ, 그다음에
ㅂ하고 사이니까 4개잖아요.

00:15:54.204 --> 00:15:59.230

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
갑스, 갑스 이렇게 발음하나요?

00:15:59.330 --> 00:16:01.656

아니죠, ㅅ 발음 안 하죠.

00:16:01.756 --> 00:16:04.656

어떻게 발음해요, 여러분?

00:16:04.756 --> 00:16:06.409

갑, 이렇게 발음하는 거 아니에요?

00:16:06.509 --> 00:16:08.120

우리는 소리를 보는 거예요.

00:16:08.220 --> 00:16:10.160

음운의 소리를 바로 정의입니다.

00:16:10.260 --> 00:16:13.185

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가장
작은 단위를 따지는 것,

00:16:13.285 --> 00:16:14.996

소리를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

00:16:15.096 --> 00:16:17.318

이렇게 형태적으로는 4개이지만

00:16:17.418 --> 00:16:19.728

애네도 형태적으로 4개가 잡혀있지만

00:16:19.828 --> 00:16:23.048

발음으로는 소리로는 개수가
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

00:16:23.148 --> 00:16:24.220

그래서 애는 몇 개다?

00:16:24.320 --> 00:16:28.855

ㄱ, ㄷ, ㅂ해서 3개라고
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

00:16:28.955 --> 00:16:30.399

이해되십니까?

00:16:30.499 --> 00:16:33.808

선생님이 아까 전에
여기에도 적었을 때

00:16:33.908 --> 00:16:37.769
막이나 그다음에 땅을 적었어요.

00:16:37.869 --> 00:16:43.215
그런데 뭘 안 적었냐면
맛, 이것을 안 적었어요.

00:16:43.315 --> 00:16:45.856
선생님, 왜요? 이것도
뜻 달라지잖아요.

00:16:45.956 --> 00:16:49.062
문제는 뭐냐면 정의에 안 맞아.

00:16:49.162 --> 00:16:55.071
여러분, 이거 발음할 때 맛스,
맛스하고 ㅅ 발음합니까?

00:16:55.171 --> 00:16:57.216
그렇지 않죠, 어떻게
발음하는 거죠.

00:16:57.316 --> 00:17:01.112
애는 발음할 때 만,
이렇게 발음하는 거죠.

00:17:01.212 --> 00:17:03.797
그래서 ㅅ이 ㄷ으로 변하게 됩니다.

00:17:03.897 --> 00:17:07.656
이런 거를 음절의 끝소리
규칙 또는 평파열음화라고 해서

00:17:07.756 --> 00:17:10.136
우리가 다음 강에서 진행을
하도록 할 건데.

00:17:10.236 --> 00:17:13.852
이런 음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
이거를 가지고는 헛갈릴 것 같으니까

00:17:13.952 --> 00:17:15.505
애를 제시하지 않은 거예요.

00:17:15.605 --> 00:17:17.604
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
시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.

00:17:17.704 --> 00:17:20.977
그래서 일단 형태적으로만
딱 잡혀있는 거를 봤는데

00:17:21.077 --> 00:17:26.210
그래서 이거, 학교 선생님에게
여쭙 봐야 되는 거예요.

00:17:26.310 --> 00:17:29.083
이렇게 물어보면 돼요.

00:17:29.183 --> 00:17:32.430
선생님, 이거 우유

음운의 개수 물어보면

00:17:32.530 --> 00:17:35.374
몇 개로 이야기하면 되나요?
2개 맞죠?

00:17:35.474 --> 00:17:36.862
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.

00:17:36.962 --> 00:17:40.569
왜냐하면 사전상의 정의는
당연히 이거이기 때문에

00:17:40.669 --> 00:17:44.362
문법상의 음운의 정의는
이거이기 때문에

00:17:44.462 --> 00:17:47.208
애의 개수를 물어보면
2개라고 해야 해요.

00:17:47.308 --> 00:17:50.554
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

00:17:50.654 --> 00:17:53.078
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어요.

00:17:53.178 --> 00:17:57.029
형태상의 음운이라는 표현.

00:17:57.129 --> 00:18:00.806
그거는 말 그대로 소리가 아닌

00:18:00.906 --> 00:18:04.012
눈에 보이는 형태를 찾아보라는
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18:04.112 --> 00:18:08.988
그래서 국어의 음운이 몇 개가 있어요?
라고 하면

00:18:09.088 --> 00:18:10.961
ㄱ, ㄴ, ㄷ, ㄹ
이렇게 가거든요.

00:18:11.061 --> 00:18:14.090
그러다보면 받침에서 소리가
안 나는 건데도 불구하고

00:18:14.190 --> 00:18:15.917
다 제시할 때가 있어요.

00:18:16.017 --> 00:18:19.691
그럴 때는 이거, 형태상의 음운이라는
의미로 물어본 걸 거야.

00:18:19.791 --> 00:18:23.863
그래서 만약에 이거 음운
개수 물어보면 2개예요?

00:18:23.963 --> 00:18:25.663

이렇게 물어보시고.

00:18:25.763 --> 00:18:28.762

그러면 선생님이 아니지,
음운은 4개야, 라고 하면

00:18:28.862 --> 00:18:31.474

선생님은 형태를 문제로
낸 사람이구나.

00:18:31.574 --> 00:18:34.432

형태적인 개수를 음운이라고
생각하시는 분이구나.

00:18:34.532 --> 00:18:37.267

사전상의 정의는 무시하는
분이구나, 이렇게 생각하고

00:18:37.367 --> 00:18:40.196

거기 기준에 따라가면 돼요.
이해되십니까?

00:18:40.296 --> 00:18:42.970

이것도 또 물어보셔야 돼요.

00:18:43.070 --> 00:18:45.561

선생님, 이거는 그러면 4개예요?

00:18:45.661 --> 00:18:48.889

이거랑 달라요.

00:18:48.989 --> 00:18:50.947

이거는 몇 개예요?

00:18:51.047 --> 00:18:55.362

이것도 3개예요, 애도
음운의 개수는 3개예요.

00:18:55.462 --> 00:18:57.484

왜요? 이렇게 되는 거니까.

00:18:57.584 --> 00:19:00.037

소리는 박끄가 아니라 박,
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개인데.

00:19:00.137 --> 00:19:05.043

애는 형태상과 소리상의 음운의
개수가 어쨌든 똑같아요.

00:19:05.143 --> 00:19:07.228

애는 ㅂ, 그다음 ㅌ, ㅍ이고

00:19:07.328 --> 00:19:09.878

애는 ㅂ, ㅌ,
ㅍ이니까 총 3개인데.

00:19:09.978 --> 00:19:11.423

이 경우에는 달라진단 말이에요.

00:19:11.523 --> 00:19:14.300

형태상으로는 ㅂ, ㅅ하고

4개로 잡히는 건데

00:19:14.400 --> 00:19:19.135

애는 사이 빠져서 발음상으로는
하나만 받침이 남아있기 때문에

00:19:19.235 --> 00:19:21.476

이때는 여러분이 음운
개수를 따질 때

00:19:21.576 --> 00:19:24.862

소리인지 아니면 형태를
물어보는 건지에 대한 구분을

00:19:24.962 --> 00:19:27.131

정확하게 선생님께
여쭙보셔야 됩니다.

00:19:27.231 --> 00:19:32.981

그러나 정의로는 우리의
정식적인 물어보는 의도는

00:19:33.081 --> 00:19:36.023

개수를 물어본다?
그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?

00:19:36.123 --> 00:19:37.522

소리를 따지는 거예요.

00:19:37.622 --> 00:19:40.119

변화를 보고 소리를 따지는 겁니다.

00:19:40.219 --> 00:19:47.543

그러면 이렇게 음운이 있는데,

00:19:47.643 --> 00:20:01.395

봤던 음운 안에 중절 음운이라는 게
있고 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.

00:20:01.495 --> 00:20:10.627

실컨 초성, 중성, 종성을 바꿔가면서
단어의 뜻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해봤는데

00:20:10.727 --> 00:20:13.491

개네들이 어디에 속하는 거냐면
이 분절 음운에 속하는

00:20:13.591 --> 00:20:18.908

자음과 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

00:20:19.008 --> 00:20:23.341

글자의 초성이나 또는 받침 종성에
올 수 있는 것들 자음이죠.

00:20:23.441 --> 00:20:24.954

그다음에 중간에 오는
거 모음이잖아요.

00:20:25.054 --> 00:20:28.456

이런 것들은 분절성이
있는 음운이라고 합니다.

00:20:28.556 --> 00:20:33.266

그래서 애를 줄여서
음소라고도 표현을 해요.

00:20:33.366 --> 00:20:37.467

그런데 국어에는 이렇게
비분절 음운이라는 게 있어서

00:20:37.567 --> 00:20:40.840

애를 운소라고 부릅니다.

00:20:40.940 --> 00:20:45.787

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음과 운을
따서 음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,

00:20:45.887 --> 00:20:49.034

이 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
뭐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,

00:20:49.134 --> 00:20:55.300

바로 첫째, 장단, 음의
길이를 이야기해요.

00:20:55.400 --> 00:20:58.124

또는 음장이라고도
표현을 할 거예요.

00:20:58.224 --> 00:21:01.843

음장, 음의 길이라고 해서 장단
또는 음장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.

00:21:01.943 --> 00:21:08.955

그다음에 더붙어서 억양을 제시할
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.

00:21:09.055 --> 00:21:11.008

이거를 교과서에 따라 좀 달라요.

00:21:11.108 --> 00:21:13.922

억양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
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00:21:14.022 --> 00:21:15.500

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.

00:21:15.600 --> 00:21:19.205

그러면 먼저 비분절 음운에는 장단
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

00:21:19.305 --> 00:21:22.446

여러분, 여기에 밑줄
친 단어를 보세요.

00:21:22.546 --> 00:21:29.850

보면 이 굴과 이 굴이 발음상으로
굴, 굴 똑같이 나와요.

00:21:29.950 --> 00:21:32.449

그러면 의미 구분이
발음으로 안 돼요.

00:21:32.549 --> 00:21:36.168

기이나 두나 큰을 바꿔치기해서
다른 단어가 된 게 아니라

00:21:36.268 --> 00:21:38.481

이게 지금 의미는
다르다는 거 알잖아요.

00:21:38.581 --> 00:21:42.678

하나는 cave이고 하나는 oyster를
이야기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데.

00:21:42.778 --> 00:21:46.066

애네들은 다른 단어로
인식을 하는 거죠.

00:21:46.166 --> 00:21:48.015

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?

00:21:48.115 --> 00:21:50.630

동음이의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.

00:21:50.730 --> 00:21:54.282

밀줄 친 단어들이 전부
다 동음이의어예요.

00:21:54.382 --> 00:21:56.580

같은 의미인데 다른
뜻을 갖고 있어요.

00:21:56.680 --> 00:22:01.338

그런데 애네들이 다른 단어로
구별되는 거는 어떤 이유때문이냐면

00:22:01.438 --> 00:22:03.761

하나의 음의 길이가
길기 때문입니다.

00:22:03.861 --> 00:22:09.088

어떤 단어가 긴 발음이 되면
우리는 이 표시를 해주게 되죠.

00:22:09.188 --> 00:22:10.562

사전을 봤을 때.

00:22:10.662 --> 00:22:12.196

그러면 질문.

00:22:12.296 --> 00:22:17.197

여기 다섯 문장 중에서 밀줄 친
어휘들 간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고

00:22:17.297 --> 00:22:20.250

긴 음이 뭘까요? 여러분 아세요?

00:22:20.350 --> 00:22:22.596

긴 굴에 들어가서 굴을 먹었다.

00:22:22.696 --> 00:22:24.278

어떤 거를 길게 해야 될까요?

00:22:24.378 --> 00:22:26.976

또 답을 넘다가 답이
결려서 오래 고생했다.

00:22:27.076 --> 00:22:28.203

어떤 거를 길게 할까요?

00:22:28.303 --> 00:22:30.821

말 위에 올랐을 때는
말을 많이 하지 마라.

00:22:30.921 --> 00:22:33.764

이거 세 번째 많이 하지 않습니까?
이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.

00:22:33.864 --> 00:22:38.287

타고 다니는 말과 사람이 하는 말
중에 어떤 게 길다는 거예요?

00:22:38.387 --> 00:22:42.558

다음, 지새는 밤과 그다음 먹는 밤
중에 어떤 게 길다는 겁니까?

00:22:42.658 --> 00:22:45.999

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길죠?

00:22:46.099 --> 00:22:49.548

날아다니는 게 겁니까? 아니면 때
맞는 거, 별이 더 겁니까?

00:22:49.648 --> 00:22:53.264

사실 지금 이거
문제라고 준 게 아니라

00:22:53.364 --> 00:22:55.806

제가 힌트를 준 거예요,
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.

00:22:55.906 --> 00:22:59.051

학교에서 교과서에 따라서
일부 어휘들을 제공을 해요.

00:22:59.151 --> 00:23:02.516

지금 장단을 구분할 수 있는 몇
개 어휘들을 이야기합니다.

00:23:02.616 --> 00:23:04.837

또는 2음절짜리 단어를
이야기하기도 해요.

00:23:04.937 --> 00:23:07.486

그런데 여러분, 그것들이
뭐가 되든 간에

00:23:07.586 --> 00:23:10.420

외우는 방식을 좀 정해놓으면
편할 것 같습니다.

00:23:10.520 --> 00:23:12.609

선생님은 이렇게 외워요.

00:23:12.709 --> 00:23:15.238

사실 더 따지면 이런
거는 필요 없어요.

00:23:15.338 --> 00:23:18.417

어차피 동음이의어가 뭐가
있는지는 알잖아요.

00:23:18.517 --> 00:23:23.838

예를 들면 밥시다, 배.

00:23:23.938 --> 00:23:28.433

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죠?

00:23:28.533 --> 00:23:32.683

선박 있죠?

00:23:32.783 --> 00:23:35.130

과일도 있죠.

00:23:35.230 --> 00:23:38.584

그다음 또 뭐도 있어요? 신체.

00:23:38.684 --> 00:23:45.226

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다양한
의미로 배라는 단어를 쓰는데

00:23:45.326 --> 00:23:48.806

그러면 애는 분절 음운인
자음과 모음 때문에

00:23:48.906 --> 00:23:50.921

이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
게 아니거든요.

00:23:51.021 --> 00:23:52.451

그러면 뭐에 따라서 구별된다?

00:23:52.551 --> 00:23:54.904

음장에 따라 구별돼야
된다고 볼 수 있지만,

00:23:55.004 --> 00:23:57.854

애네들 지금 3개 다 전부
다 사실 음이 같아요.

00:23:57.954 --> 00:23:59.447

짧게 갑니다.

00:23:59.547 --> 00:24:01.704

그냥 배, 배, 배 이렇게 갑니다.

00:24:01.804 --> 00:24:03.571

그러면 긴음이 있어요? 있어요.

00:24:03.671 --> 00:24:09.300

배가 긴 게 있는데 그게
어떤 거냐면, 이런 거죠.

00:24:09.400 --> 00:24:15.356

곱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.
몰라요?

00:24:15.456 --> 00:24:16.804
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.

00:24:16.904 --> 00:24:23.567
A는 B보다 두 배 길다.

00:24:23.667 --> 00:24:26.427
이렇게 이야기할 때의 배예요.

00:24:26.527 --> 00:24:29.892
그래서 이거는 발음을 A는
B보다 두 배~ 길다.

00:24:29.992 --> 00:24:35.022
물론 장음이라고 해서 배~
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.

00:24:35.122 --> 00:24:37.320
살짝 길어진다는 건데.

00:24:37.420 --> 00:24:39.651
두 배~ 길다, 이렇게
약간 길게 만들고.

00:24:39.751 --> 00:24:42.960
애는 배를 샀다, 배가
맛있다, 아니면 배가 불렀다.

00:24:43.060 --> 00:24:44.230
이렇게 쓰는 것이고요.

00:24:44.330 --> 00:24:45.974
그런데 이런 거는 보세요.

00:24:46.074 --> 00:24:50.763
배라는 어휘가 어떤 게
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.

00:24:50.863 --> 00:24:53.898
우선 4개의 재료가 있다는
거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,

00:24:53.998 --> 00:24:57.392
그중에서도 짧은 거를 굳이
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.

00:24:57.492 --> 00:24:59.940
저는 어떻게 하냐면 긴 거
위주로 외우는 거예요.

00:25:00.040 --> 00:25:01.221
딱 긴 것만 골라잡아.

00:25:01.321 --> 00:25:05.176
그러면 곱절이라는 의미를
가지고 있는 배가 길구나.

00:25:05.276 --> 00:25:08.466

그러면 나는 이 배가 길다는 것을
문장을 통해서 외워야겠어.

00:25:08.566 --> 00:25:11.471

그러면 어떻게 외우냐면
일부로 그 문장에

00:25:11.571 --> 00:25:17.450

많다, 길다, 크다, 높다와 같이
뭔가 정도가 심한 거 있잖아요.

00:25:17.550 --> 00:25:19.930

이런 어휘를 붙여서 외웁니다.

00:25:20.030 --> 00:25:22.869

A가 B보다 두 배 길다.

00:25:22.969 --> 00:25:28.153

배가 곱절이 길다고 기억을 안
하고 문장으로 기억해요.

00:25:28.253 --> 00:25:30.362

A가 두 배 길다.

00:25:30.462 --> 00:25:33.718

길다 할 때 그 문장에서
쓰는 게 바로 이거였지?

00:25:33.818 --> 00:25:34.875

그렇게 외웁니다.

00:25:34.975 --> 00:25:37.542

지금 여기 문장 보면
힌트가 다 달려있어요.

00:25:37.642 --> 00:25:39.776

첫 번째, 굴.

00:25:39.876 --> 00:25:41.509

어떤 게 긴 거예요?

00:25:41.609 --> 00:25:43.100

그렇죠, cave가 긴 겁니다.

00:25:43.200 --> 00:25:44.362

들어가는 굴이 길어요.

00:25:44.462 --> 00:25:46.326

그래서 제가 단서 붙여놨죠?
긴 굴.

00:25:46.426 --> 00:25:47.754

그래서 외우는 거예요.

00:25:47.854 --> 00:25:49.979

되게 긴 굴을 오래 여행했다.

00:25:50.079 --> 00:25:52.262

제 머릿속에서는 그런
식으로 기억이 남는 거지

00:25:52.362 --> 00:25:55.169

들어가는 굴이 길어, 이렇게
기억하지는 않아요.

00:25:55.269 --> 00:25:56.511

그러면 기억 시간이 너무 짧아.

00:25:56.611 --> 00:25:58.693

이 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.

00:25:58.793 --> 00:26:00.434

긴지 짧은지 외울 필요가 없어.

00:26:00.534 --> 00:26:02.987

그냥 내가 알고 있는 굴만
길고 나머지는 짧은 거예요.

00:26:03.087 --> 00:26:04.008

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
00:26:04.108 --> 00:26:05.371

그래서 긴 쪽으로 외워주세요.

00:26:05.471 --> 00:26:07.332

긴 굴에 들어갔다.

00:26:07.432 --> 00:26:09.051

먹는 거? 그러면
그거는 짧겠지, 뭐.

00:26:09.151 --> 00:26:10.315

내가 외운 거 아니니까,
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.

00:26:10.415 --> 00:26:12.181

밑에도 마찬가지로요.

00:26:12.281 --> 00:26:15.774

답을 넘다가 답이 걸려서
오래 고생했다.

00:26:15.874 --> 00:26:17.689

답에 한 번 걸리면 너무 오래가.

00:26:17.789 --> 00:26:22.066

이런 식으로 문장을 외웠더니
걸리는 답, 드는 답.

00:26:22.166 --> 00:26:24.857

이게 긴 거고, 신체의
문제가 긴 거고.

00:26:24.957 --> 00:26:26.897

넘는 거는 짧은 게 되는 거죠.

00:26:26.997 --> 00:26:29.277

다음, 너는 말이 왜 이렇게 많아?

00:26:29.377 --> 00:26:30.453

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.

00:26:30.553 --> 00:26:32.589

그래서 말 위에 올랐을 때는
말을 많이 하지 마라.

00:26:32.689 --> 00:26:36.337

말 하는 말, 이게 길다는
것을 문장을 통해서

00:26:36.437 --> 00:26:38.026

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?

00:26:38.126 --> 00:26:41.124

이렇게 외우면 나머지 타고
다니는 거는 짧은 거예요.

00:26:41.224 --> 00:26:43.775

다음, 밥을 왜 이렇게
오래 쳐먹니?

00:26:43.875 --> 00:26:46.118

이렇게 비속어 섞어가면서
그렇게 외우는 거야.

00:26:46.218 --> 00:26:47.421

밥을 왜 이렇게 오래 쳐먹어?

00:26:47.521 --> 00:26:49.255

그러면 어두운 거는 짧은 거구나.

00:26:49.355 --> 00:26:50.647

다음요.

00:26:50.747 --> 00:26:56.799

별이 많이 날아다닌다, 이렇게
기억하면 머릿속에 연상이 되잖아요.

00:26:56.899 --> 00:26:58.842

별이 많은 거, 긴 거.

00:26:58.942 --> 00:27:01.796

때리는 별은 좀 짧은 거.

00:27:01.896 --> 00:27:02.886

매도 그래요.

00:27:02.986 --> 00:27:05.285

날아다니는 매랑 맞는
매가 있잖아요?

00:27:05.385 --> 00:27:08.009

뭐가 기냐? 날아다니는 게 길어요.

00:27:08.109 --> 00:27:10.031

그러니까 매가 많이
날아다닌다, 오래 날아다닌다.

00:27:10.131 --> 00:27:13.025

이런 식으로 외워주면
나머지 매가 짧구나.

00:27:13.125 --> 00:27:15.680

이렇게 문장으로 기억해야 좀
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.

00:27:15.780 --> 00:27:19.178
사실 여러분 교과서의 예들이
다 다르게 나오는데

00:27:19.278 --> 00:27:20.845
이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.

00:27:20.945 --> 00:27:23.115
한 가지, 이 밑에
있는 거 보세요.

00:27:23.215 --> 00:27:27.684
장음이라도 2음절 이후에는
보통 단음이 됩니다.

00:27:27.784 --> 00:27:31.065
아주 특수한 합성어, 파생어
만드는 경우 아니면

00:27:31.165 --> 00:27:34.917
거의 대부분은 2음절 이후에는
단음으로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7:35.017 --> 00:27:39.556
무슨 소리냐면, 여기 볼게요.

00:27:39.656 --> 00:27:42.498
여기 먹는 밤이 길잖아요.

00:27:42.598 --> 00:27:47.508
그러면 이렇게 발음돼야
되는 놈인데,

00:27:47.608 --> 00:27:52.060
만약에 이거를 알밤으로
해서, 뜻은 똑같잖아요.

00:27:52.160 --> 00:27:55.767
그런데 애가 1음절짜리가
아니라 2음절로 밀리잖아요.

00:27:55.867 --> 00:28:00.418
그러면 애는 발음이 알밤,
하면서 짧아져요.

00:28:00.518 --> 00:28:01.545
길지 않아요.

00:28:01.645 --> 00:28:05.466
긴 소리가 2음절 이후로 넘어가게
되면 짧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8:05.566 --> 00:28:06.627
이해되세요?

00:28:06.727 --> 00:28:13.356
따라서 이 말 같은 경우에도
혼жат말,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면

00:28:13.456 --> 00:28:25.426
말은 긴 거지만 인사말, 이런 식으로
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?

00:28:25.526 --> 00:28:27.999
인사말 하면서 길지 않아요.

00:28:28.099 --> 00:28:29.329
짧게 가는 겁니다.

00:28:29.429 --> 00:28:33.041
그래서 3음절, 2음절 이렇게 가게
되면 짧아진다는 거 외워주시고요.

00:28:33.141 --> 00:28:39.383
그다음 비분절 음운으로는 억양이라는
거를 제시하는 교과서가 있고

00:28:39.483 --> 00:28:41.803
억양을 제시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

00:28:41.903 --> 00:28:46.167
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억양은 비분절
음운으로 처리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.

00:28:46.267 --> 00:28:48.482
선생님 가지고 있는
문법 지식으로도.

00:28:48.582 --> 00:28:53.429
그러나 교과서에서 어떤 교수님들은
이거를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,

00:28:53.529 --> 00:28:56.035
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.

00:28:56.135 --> 00:29:00.242
애는 지금 동일한 단어예요,
동일한 문장입니다.

00:29:00.342 --> 00:29:03.724
그런데 뜻이 구별된다고
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.

00:29:03.824 --> 00:29:06.709
go의 뜻은 똑같이 있어요.

00:29:06.809 --> 00:29:10.877
그런데 의미의 구별을 어디까지
간 거냐면 이게 의도가 뭐냐.

00:29:10.977 --> 00:29:13.757
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냐,
아니면 명령하는 거냐,

00:29:13.857 --> 00:29:18.625
청유하는 거냐, 평서문으로
설명하는 거냐가 달라지지 않느냐.

00:29:18.725 --> 00:29:20.022

한번 가보겠습니다.

00:29:20.122 --> 00:29:22.812
애를 지금 평서문을 만들어볼까요?

00:29:22.912 --> 00:29:25.456
그러면 보통 마침표 찍죠.

00:29:25.556 --> 00:29:28.575
그리고 억양은 어떻게 됩니까?

00:29:28.675 --> 00:29:30.110
나 집에 가.

00:29:30.210 --> 00:29:36.355
그냥 나 집에 가,
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

00:29:36.455 --> 00:29:44.988
그다음 만약에 이제
의문문이면 어떻게 될까요?

00:29:45.088 --> 00:29:48.560
그러면 물어보는 물음표가
나올 수 있는 거죠?

00:29:48.660 --> 00:29:51.776
집에 가?
끝을 올려야겠죠.

00:29:51.876 --> 00:29:55.075
집에 가? 올려주는 그런 느낌.

00:29:55.175 --> 00:29:58.669
그다음에 명령하는 거라면 집에 가.

00:29:58.769 --> 00:30:03.119
나 집에 가.
약간 더 높아져요.

00:30:03.219 --> 00:30:07.414
그러나 직선으로 가는
느낌이 있는 거죠.

00:30:07.514 --> 00:30:13.432
그래서 이것도 마침표를
찍어주겠는데 명령문의 기능이고.

00:30:13.532 --> 00:30:16.997
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? 뭘까요?

00:30:17.097 --> 00:30:18.834
이거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,

00:30:18.934 --> 00:30:21.944
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죠.

00:30:22.044 --> 00:30:26.909
우리 집에 가아아~
이거예요.

00:30:27.009 --> 00:30:29.641

약간 흔들어줘야 돼.

00:30:29.741 --> 00:30:34.300

이렇게 되면 이런 거는
청유문, 함께 가자.

00:30:34.400 --> 00:30:37.825

이런 뉘앙스가 된다는 겁니다.

00:30:37.925 --> 00:30:41.610

이렇게 억양이 달라지니까 의도하는
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

00:30:41.710 --> 00:30:44.912

그래서 그 의도하는 바를
의미라고 이야기해서

00:30:45.012 --> 00:30:48.911

의미를 구분지을 수 있는
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

00:30:49.011 --> 00:30:53.052

이렇게 억양도 이 안에 넣어야
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에서

00:30:53.152 --> 00:30:54.705

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.

00:30:54.805 --> 00:30:56.663

그런데 애는 보편적인
경우는 아닙니다.

00:30:56.763 --> 00:30:59.566

그래서 음장 정도는
확실하게 기억하시고

00:30:59.666 --> 00:31:01.232

억양은 있을 수도 있다.

00:31:01.332 --> 00:31:04.727

그래서 이렇게 억양은 비분절
음운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.

00:31:04.827 --> 00:31:07.327

교과서에 따라 이거는
해석하면 되고요.

00:31:07.427 --> 00:31:10.893

문제로 출제할 만한 요소는
아니예요, 2번의 경우에는.

00:31:10.993 --> 00:31:15.825

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줘야
되는 거는 분절 음운입니다.

00:31:15.925 --> 00:31:18.388

여기까지는 외워야 되는
것도 없었잖아요.

00:31:18.488 --> 00:31:22.284

이제 분절 음운에서
자음과 모음들, 체계표

00:31:22.384 --> 00:31:24.571

이런 것들 정확하게
외워주셔야 되는데.

00:31:24.671 --> 00:31:33.227

우선 자음과 모음은
어떤 차이가 있느냐.

00:31:33.327 --> 00:31:37.288

여기가 성대 부분이거든요.

00:31:37.388 --> 00:31:39.700

이 아래쪽에 허파가
있을 거 아니니까?

00:31:39.800 --> 00:31:41.489

허파에서 공기를 내뿜어요.

00:31:41.589 --> 00:31:44.149

그래서 성대를 통해서
공기가 나오는 거죠.

00:31:44.249 --> 00:31:48.928

나올 때 입에 있는 공간,
구강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

00:31:49.028 --> 00:31:52.304

일부 공기는 위쪽으로 코를
타서 내려가기도 합니다.

00:31:52.404 --> 00:31:55.663

그래서 공기는 일단 양쪽
갈래로 빠져서 나오는데

00:31:55.763 --> 00:32:01.746

자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
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

00:32:01.846 --> 00:32:03.632

방해하는 동작이에요.

00:32:03.732 --> 00:32:11.709

그래서 자음을 장애음이라는
표현을 쓰기도 해요.

00:32:11.809 --> 00:32:13.371

장애를 준다고요.

00:32:13.471 --> 00:32:25.526

그래서 공기의 흐름을
방해하는 소리라는 건데.

00:32:25.626 --> 00:32:29.366

방해를 할 때 어느 부위를
가지고 방해하느냐에 따라서

00:32:29.466 --> 00:32:32.921

그 음운적인 특징이

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

00:32:33.021 --> 00:32:37.937

먼저 마, 마, 마, 마, 마 하면서
뭐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?

00:32:38.037 --> 00:32:40.919

모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32:41.019 --> 00:32:41.761

아~

00:32:41.861 --> 00:32:42.958

오~

00:32:43.058 --> 00:32:44.230

우~

00:32:44.330 --> 00:32:45.368

으~

00:32:45.468 --> 00:32:46.222

이~

00:32:46.322 --> 00:32:49.119

하면서 공기가 그냥 공명을
이루면서 나오는 소리예요.

00:32:49.219 --> 00:33:05.516

그래서 공기가 입 안을 통해
공명하며 나가는 소리.

00:33:05.616 --> 00:33:11.217

사실 자음이 모음 없이
발음이 될 수가 없어.

00:33:11.317 --> 00:33:14.160

여러분 이거 한번 발음해보세요.

00:33:14.260 --> 00:33:15.666

발음이 됩니까?

00:33:15.766 --> 00:33:22.099

ㄱ이라는 거는 애의 명칭이고
이거를 발음해보라고요.

00:33:22.199 --> 00:33:23.447

가, 아니죠.

00:33:23.547 --> 00:33:28.566

이렇게 발음하면 들립니까?

00:33:28.666 --> 00:33:32.126

살짝 살짝 이려고
있는 거 아니예요?

00:33:32.226 --> 00:33:36.667

사실 자음만 가지고 발음이
안 되는 거예요.

00:33:36.767 --> 00:33:40.265

그래서 자음은 항상 모음에 덧붙어서
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건데.

00:33:40.365 --> 00:33:43.137

기본적으로 모음이라는
것은 공명하면서

00:33:43.237 --> 00:33:46.860

아, 애, 이, 오, 우, 이 이런
식으로 모음이 나오는 겁니다.

00:33:46.960 --> 00:33:51.822

그런데 여기에서 입이나 혀나 이런
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는데

00:33:51.922 --> 00:33:56.324

먼저 입술을 가지고 방해할
할 수도 있고요.

00:33:56.424 --> 00:33:59.722

지금 이게 혀예요.

00:33:59.822 --> 00:34:02.860

혀를 어디에? 윗 잇몸에
닿았다가 떨어뜨리면서

00:34:02.960 --> 00:34:05.293

나, 나, 나 이런 것도 있고요.

00:34:05.393 --> 00:34:06.908

다, 다, 다

00:34:07.008 --> 00:34:08.217

가, 가, 가

00:34:08.317 --> 00:34:10.325

가는 이렇게 혀가 만들어집니다.

00:34:10.425 --> 00:34:12.104

가, 가, 가 이렇게 되는 거고.

00:34:12.204 --> 00:34:15.306

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
뭐야, 방해해야 되는데?

00:34:15.406 --> 00:34:18.600

하, 하, 하는 입모양
가지고 방해 안 하네요?

00:34:18.700 --> 00:34:22.530

하는 어디를 가지고 방해하는
거냐면 여기로 방해하는 거예요.

00:34:22.630 --> 00:34:23.805

안 느껴지죠, 사실?

00:34:23.905 --> 00:34:27.010

하, 하, 하 할 때마다
여기가 좁혀집니다.

00:34:27.110 --> 00:34:31.033

지금 이렇게 조음 기관을 통해서
공기를 방해하면서 내는

00:34:31.133 --> 00:34:33.662

자음의 체계를 먼저
보도록 할 거예요.

00:34:33.762 --> 00:34:40.488

우리는 이 표를 아주
친숙하게 여겨야만 해요.

00:34:40.588 --> 00:34:43.934

이 표를 아주 친숙하게
여겨야만 해요, 여러분.

00:34:44.034 --> 00:34:46.406

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

00:34:46.506 --> 00:34:50.513

우선 크게 자음은 두 부류로
나눌 수 있습니다.

00:34:50.613 --> 00:34:53.682

이놈하고 이놈하고 해서 두
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.

00:34:53.782 --> 00:34:56.877

그래서 먼저 채워주자면
이쪽에 있는 것과

00:34:56.977 --> 00:34:58.525

이쪽에 있는 거 2개로 나뉘었을 때

00:34:58.625 --> 00:34:59.963

여기에 있는 거를
먼저 이야기할게요.

00:35:00.063 --> 00:35:03.616

여러분 중학교 때, 진짜
이거는 어디서 들어봤겠지.

00:35:03.716 --> 00:35:05.813

울림 소리 뭐 있어요?

00:35:05.913 --> 00:35:10.523

학교 선생님들이 울림 소리를 외우는
방법에 대해서 알려줬을 거예요.

00:35:10.623 --> 00:35:13.189

여러분, 어떻게 외웠습니까?

00:35:13.289 --> 00:35:16.502

대부분 많이 외우는 방식이
나라마음, 노란양말

00:35:16.602 --> 00:35:18.365

이런 거로 외우던데.

00:35:18.465 --> 00:35:22.488

또는 일부 특수하게 배운
친구들이 있을 거예요.

00:35:22.588 --> 00:35:26.310

루마니아, 아니면 축구
좋아하는 친구들은 네이마르.

00:35:26.410 --> 00:35:30.988

마로니에, 아로나미, 미나리
등등 해서 별의별 거.

00:35:31.088 --> 00:35:32.590

사실 엄청나게 많아요.

00:35:32.690 --> 00:35:37.149

그래서 ㄴ, ㄹ, ㄹ, ㅇ 이런 것들이
바로 울림 소리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죠?

00:35:37.249 --> 00:35:43.097

그 지식은 있을 거라고 봐요.

00:35:43.197 --> 00:35:45.389

그래서 아래가 울림 소리에요.

00:35:45.489 --> 00:35:47.854

자음을 크게 양분하면 울림 소리.

00:35:47.954 --> 00:35:49.225

그러면 위에는 뭐가 될까요?

00:35:49.325 --> 00:35:51.263

울림 소리와 울리지 않는 소리.

00:35:51.363 --> 00:35:53.768

울리지 않는 소리를
무슨 소리라고 한다?

00:35:53.868 --> 00:35:58.970

안울림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.

00:35:59.070 --> 00:36:00.489

이렇게 양분하는 거예요.

00:36:00.589 --> 00:36:01.915

울림 소리, 안울림 소리.

00:36:02.015 --> 00:36:05.827

그러면 여기서 울림
소리와 안울림 소리는

00:36:05.927 --> 00:36:07.786

뭐를 울리고 뭐를 안 울리는 거냐.

00:36:07.886 --> 00:36:09.616

여기에 있는 성대 부분입니다.

00:36:09.716 --> 00:36:14.464

그래서 성대를 울리면서 내는
소리를 유성음이라고 하는 거고.

00:36:14.564 --> 00:36:20.359

성대의 울림이 없다면
무성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

00:36:20.459 --> 00:36:25.901

제가 용어는 또 한번
적어보도록 할게요.

00:36:30.172 --> 00:36:32.393

안울림 소리를 뭐라고 부른다?

00:36:32.493 --> 00:36:35.193

무성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.

00:36:35.293 --> 00:36:39.273

그다음에 울림 소리를
뭐라고도 부른다?

00:36:39.373 --> 00:36:42.144

유성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.

00:36:42.244 --> 00:36:47.599

그다음, 지금 안울림 소리를
보면 3칸 나뉘어.

00:36:47.699 --> 00:36:51.775

각각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

00:36:51.875 --> 00:36:54.586

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
전 세계 어느 나라 소리든,

00:36:54.686 --> 00:36:59.102

어느 나라 발음이든 똑같이 가장
기본적인 음이 될 수밖에 없는 소리는

00:36:59.202 --> 00:37:03.207

바로 파열음이라는 거예요.

00:37:05.595 --> 00:37:10.001

파열음은 한자적인 지식이
있다면 편할 텐데 파,

00:37:10.101 --> 00:37:12.006

터뜨리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37:12.106 --> 00:37:14.312

열, 찢다라는 이야기입니다.

00:37:14.412 --> 00:37:17.971

그러니까 소리를 막았다가
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를

00:37:18.071 --> 00:37:20.768

우리는 파열음이라고
이야기를 합니다.

00:37:20.868 --> 00:37:24.528

그래서 빵, 빵 터지면서 내는
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.

00:37:24.628 --> 00:37:28.579

가령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밥
할 때, 또는 바보 할 때

00:37:28.679 --> 00:37:31.130

ㅂ 같은 경우가 바로
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.

00:37:31.230 --> 00:37:36.162

바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을
일단 오므려야 됩니다.

00:37:36.262 --> 00:37:40.760

오므렸다가 바, 바 하면서 터뜨리면서
나는 소리가 나는 거죠.

00:37:40.860 --> 00:37:42.445

그래서 그거를 파열음이라고 하고요.

00:37:42.545 --> 00:37:45.574

다음 두 번째 칸에 뭐가
들어 가야 되는지는 이따가 보고.

00:37:45.674 --> 00:37:50.063

세 번째 칸에 파열음과 상반될
수 있을 발음 방식이

00:37:50.163 --> 00:37:54.084

바로 마찰음이에요.

00:37:54.184 --> 00:37:57.502

무슨 소리냐면 파열음은
일단 공기를 막았다가

00:37:57.602 --> 00:38:00.493

조음 기관으로 막았다가
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인데

00:38:00.593 --> 00:38:03.027

마찰음은 공기의 길을
아예 막지를 않아요.

00:38:03.127 --> 00:38:04.318

살짝 열어둔 상태입니다.

00:38:04.418 --> 00:38:08.988

열어준 사이로 공기가 나가니까
위, 아래를 쓸 겁니다.

00:38:09.088 --> 00:38:12.503

그래서 마찰시키면서 나가는 소리를
마찰음이라고 하는 거예요.

00:38:12.603 --> 00:38:13.917

이 둘은 성질이 완전 다릅니다.

00:38:14.017 --> 00:38:15.950

파열음은 막았다가 터뜨리고

00:38:16.050 --> 00:38:21.012

마찰음은 안 막고 사이로 내뿜으면서
떨게 만드는 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.

00:38:21.112 --> 00:38:24.757

여기 지금 사이에 들어올 높은
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

00:38:24.857 --> 00:38:26.519
조금씩 가지고 가는 거예요.

00:38:26.619 --> 00:38:29.461
그래서 용어도 한
어휘씩을 이용합니다.

00:38:29.561 --> 00:38:36.178
이렇게 파와 찰을 이용해서
파찰음이라고 표현하는 높이에요.

00:38:38.394 --> 00:38:39.650
어렵지는 않죠.

00:38:39.750 --> 00:38:40.865
다시 한 번 정리해봅시다.

00:38:40.965 --> 00:38:42.518
안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있는데

00:38:42.618 --> 00:38:44.617
안울림 소리에 터뜨리는 파열음.

00:38:44.717 --> 00:38:48.948
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는 쓸면서
나가는 마찰시키는 마찰음.

00:38:49.048 --> 00:38:52.737
그다음에 중간에 파열음과 마찰음의
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는

00:38:52.837 --> 00:38:54.753
파찰음,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.

00:38:54.853 --> 00:38:57.450
그다음에 울림 소리
2칸 남아 있는데,

00:38:57.550 --> 00:39:00.445
여기 2칸에 해당하는 거
우리 알고 있는데.

00:39:00.545 --> 00:39:02.637
비음, 유음이라고 들어보셨죠?

00:39:02.737 --> 00:39:07.029
그래서 비음이라는 거는 코 비 자
써서 코를 통하는 소리입니다.

00:39:07.129 --> 00:39:12.867
그다음에 위에는 코를 통하지
않는 흐르는 소리라고 해서

00:39:12.967 --> 00:39:14.786
유음이라고 해요.

00:39:14.886 --> 00:39:16.967
그래서 확실하게 둘이 차이가 나요.

00:39:17.067 --> 00:39:19.578

비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
코를 통하기 때문에

00:39:19.678 --> 00:39:21.069

코를 만약에 막잖아요?

00:39:21.169 --> 00:39:23.077

그러면 소리의 성질이
완전 달라져버려요.

00:39:23.177 --> 00:39:24.211

이따가 한번 해볼게요.

00:39:24.311 --> 00:39:27.473

그러나 비음 같은 경우에는
공기를 내뿜지 않아요.

00:39:27.573 --> 00:39:31.797

안 나가고 여기로 가기 때문에 코를
막아도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

00:39:31.897 --> 00:39:33.592

그런 소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

00:39:33.692 --> 00:39:35.102

다시.

00:39:35.202 --> 00:39:37.767

여기 이거를 또 어떻게 나눅니까?

00:39:37.867 --> 00:39:40.352

아니요, 어려운 거는 없어요.

00:39:40.452 --> 00:39:42.384

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.

00:39:42.484 --> 00:39:46.422

예사 소리.

00:39:48.828 --> 00:39:51.305

예사 소리,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.

00:39:51.405 --> 00:39:55.021

여러분,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.

00:39:57.361 --> 00:40:02.641

국어에는 삼지적
상관속이라고 소리적 성질이

00:40:02.741 --> 00:40:05.673

무성음과 유성음으로만 나누게
되는 양분하게 되는

00:40:05.773 --> 00:40:07.763

영어권하고 조금 다릅니다.

00:40:07.863 --> 00:40:11.221

그래서 우리는 예사
소리라는 게 있고

00:40:11.321 --> 00:40:18.773
거기에 대응되는 소리가 있어요.

00:40:18.873 --> 00:40:23.270
이렇게 되면 애를 무슨
소리라고 합니까?

00:40:23.370 --> 00:40:29.163
된 소리라고 부르죠.

00:40:29.263 --> 00:40:30.852
이거를 뭐라고 부르죠?

00:40:30.952 --> 00:40:32.740
지금 모양이 비슷하잖아요.

00:40:32.840 --> 00:40:36.105
세종대왕이 만들 때에도 그
모양에 본따서 비슷하게

00:40:36.205 --> 00:40:38.952
그 자질을 맞게끔 썼다는 건데.

00:40:39.052 --> 00:40:40.698
이거 무슨 소리라고 합니까?

00:40:40.798 --> 00:40:45.241
거센 소리라고 하죠.

00:40:45.341 --> 00:40:49.436
그러면 여기에 티이 왔어요.

00:40:49.536 --> 00:40:51.613
그러면 여기에 뭐 와야 돼요?

00:40:51.713 --> 00:40:53.608
계열이니까.

00:40:53.708 --> 00:40:56.245
여기는 뭐 와야 됩니까?

00:40:56.345 --> 00:40:59.331
예사 소리로 ㄷ이 와줘야 되겠죠.

00:40:59.431 --> 00:41:01.918
그다음에 여기 이거 왔으면

00:41:02.018 --> 00:41:04.329
이 자리에 뭐 와야 돼요?

00:41:04.429 --> 00:41:06.789
거센 소리 계열 이거
와야 되는 거죠?

00:41:06.889 --> 00:41:09.119
그다음에 예사 소리,
이거 와야 되는 거죠.

00:41:09.219 --> 00:41:11.981
이런 거를 모르지는 않죠.

00:41:14.303 --> 00:41:15.537
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41:15.637 --> 00:41:17.560

그다음 오면

00:41:17.660 --> 00:41:18.735

이거고

00:41:18.835 --> 00:41:21.179

여기는 없죠, 여기는 지금
차지하는 게 없습니다.

00:41:21.279 --> 00:41:22.507

이거예요.

00:41:22.607 --> 00:41:27.364

보면 예사 소리에 대응되는
거센 소리와 된 소리 체계들은

00:41:27.464 --> 00:41:31.784

사실 모양도 비슷하고 우리 잘 알고
있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보고요.

00:41:31.884 --> 00:41:34.471

지금 우리가 따지는
것들은 이겁니다.

00:41:34.571 --> 00:41:39.568

여기 지금 칸에 들어가는 게 예사
소리, 된 소리, 거센 소리.

00:41:39.668 --> 00:41:41.302

예사 소리, 된 소리, 거센 소리

00:41:41.402 --> 00:41:43.495

예사 소리, 된 소리, 거센
소리,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.

00:41:43.595 --> 00:41:47.276

그런데 먼저 예사 소리로
뭐가 오는지만 알면

00:41:47.376 --> 00:41:51.152

그 자리에 뭐가 오는지만 알면 나머지
채우는 거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.

00:41:51.252 --> 00:41:54.323

그래서 일단 예사 소리 위주로만
잡아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.

00:41:54.423 --> 00:41:58.099

그리고 이렇게 나눠주는
기준을 뭐라고 하나면

00:41:58.199 --> 00:42:01.578

이것을 소리의 성질이라고 하는데
조음 방법이라고 해요.

00:42:01.678 --> 00:42:07.649

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.

00:42:07.749 --> 00:42:10.550

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따라서

00:42:10.650 --> 00:42:15.316

이렇게 유성음, 무성음, 파열음,
파찰음, 마찰음, 비음, 유음

00:42:15.416 --> 00:42:16.925

이런 거를 나눌 수가
있다는 겁니다.

00:42:17.025 --> 00:42:19.689

그리고 한 가지 더 적어드리면

00:42:19.789 --> 00:42:28.434

이렇게 예사 소리를 가지고
한자어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

00:42:28.534 --> 00:42:31.857

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것을
평음이라고 표현을 해요.

00:42:31.957 --> 00:42:36.117

또는 부드러운 의미라고 해서
연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.

00:42:36.217 --> 00:42:37.685

같이 한번 알아두시고요.

00:42:37.785 --> 00:42:41.484

그다음에 만약에 이게
된 소리가 나왔다.

00:42:41.584 --> 00:42:45.175

그러면 된 소리는 딱딱한
소리이기 때문에

00:42:45.275 --> 00:42:49.442

딱딱할 경 자를 써서
경음이라고도 하고요.

00:42:49.542 --> 00:42:54.191

또는 농밀한 소리라고 해서
농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.

00:42:54.291 --> 00:43:00.589

다음, 거센 소리의 경우에는
격렬하게 나간다고 해서

00:43:00.689 --> 00:43:11.840

격음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기운 기
자를 써서 기음, 또는 유기음

00:43:11.940 --> 00:43:13.283

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

00:43:13.383 --> 00:43:15.584

이거는 한자적인 용어의 설명이고요.

00:43:15.684 --> 00:43:17.212
가볍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.

00:43:17.312 --> 00:43:18.662
이제 그다음 가겠습니다.

00:43:18.762 --> 00:43:22.271
위쪽이 5칸, 세로 축으로
5칸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.

00:43:22.371 --> 00:43:26.739
애는 지금 하나같이 조음
위치를 의미하는 거고

00:43:26.839 --> 00:43:30.989
조음 위치가 앞에서부터
뒤로 가는 그런 흐름이에요.

00:43:31.089 --> 00:43:42.739
그래서 먼저 보면 앞쪽을 이용해서
공기를 방해하는 것부터 갑니다.

00:43:42.839 --> 00:43:46.418
그러면 지금 가장 최전방에
있는 게 입술이죠.

00:43:46.518 --> 00:43:49.387
그래서 입술을 가지고 소리를
만들어내는 게 먼저고.

00:43:49.487 --> 00:43:52.922
그다음에 여기에는 입술
쪽이 나오는 겁니다.

00:43:53.022 --> 00:43:57.291
그다음에는 혀를 가지고 노는데

00:43:57.391 --> 00:44:01.416
혀를 지금 여기에 윗 잇몸
쪽에 닿았다가 떼었다가 하면서

00:44:01.516 --> 00:44:02.539
만드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.

00:44:02.639 --> 00:44:04.582
그래서 지금 첫 단계는
이쪽을 이용하고

00:44:04.682 --> 00:44:06.320
두 번째는 이쪽을 이용하고

00:44:06.420 --> 00:44:07.961
그다음에는 혀의 이쪽 부분,

00:44:08.061 --> 00:44:10.867
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
만나게 해서 만들어지는

00:44:10.967 --> 00:44:12.374
이런 소리가 있고.

00:44:12.474 --> 00:44:14.551
또 그다음에 혀의 뒷부분 있잖아요.

00:44:14.651 --> 00:44:17.213
뒷부분을 여기에 대서
만들내는 소리가 있고.

00:44:17.313 --> 00:44:20.304
그리고 나중에 목에서
나오는 소리가 있고.

00:44:20.404 --> 00:44:24.386
그래서 앞에서부터 단계별로
조음 위치가 만들어집니다.

00:44:24.486 --> 00:44:28.053
그래서 어떻게 잡냐면
이렇게 잡혀요.

00:44:28.153 --> 00:44:29.645
정리가 됐죠?

00:44:29.745 --> 00:44:32.709
조음방법에 안울림
소리와 울림 소리.

00:44:32.809 --> 00:44:35.155
각각 파열음, 파찰음, 마찰음.

00:44:35.255 --> 00:44:38.235
그리고 예사, 된, 거센.

00:44:38.335 --> 00:44:39.973
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.

00:44:40.073 --> 00:44:41.875
예사, 된, 거센

00:44:41.975 --> 00:44:43.380
예사, 된, 거센

00:44:43.480 --> 00:44:45.014
그리고 예사, 된만 나와있습니다.

00:44:45.114 --> 00:44:46.177
이따가 보고요.

00:44:46.277 --> 00:44:47.398
비음, 유음 남아있고요.

00:44:47.498 --> 00:44:50.983
위쪽을 보면 처음에는 입술을
가지고 노는 소리.

00:44:51.083 --> 00:44:52.434
앞에서부터 갑니다.

00:44:52.534 --> 00:44:55.172
그리고 한자로 보게 되면
입술 순 자를 사용해서

00:44:55.272 --> 00:44:56.453

순음이라고 표현해요.

00:44:56.553 --> 00:45:00.410

또는 두입술 소리니까 양순음,
이렇게 이야기해도 같은 소리예요.

00:45:00.510 --> 00:45:07.171

다음 윗 잇몸, 여기에 나와있는 윗
잇몸과 혀끝이 만나는 소리가 됩니다.

00:45:07.271 --> 00:45:12.545

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혀끝
부분이 이쪽에 닿는 거예요.

00:45:12.645 --> 00:45:14.609

이쪽에 닿는 소리가 있는데

00:45:14.709 --> 00:45:18.566

이거를 우리가 치조음이라고
표현을 할 건데,

00:45:18.666 --> 00:45:22.711

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
공간이 조금 있대요.

00:45:22.811 --> 00:45:26.444

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접근하면
치조라는 표현을 쓴답니다.

00:45:26.544 --> 00:45:29.998

그래서 이쪽에 만나게
하는 소리라고 해서

00:45:30.098 --> 00:45:32.409

치조음이라는 표현을
쓴다고 보면 돼요.

00:45:32.509 --> 00:45:36.029

윗 잇몸과 혀끝을 만나게
하는 소리, 치조음.

00:45:36.129 --> 00:45:37.277

다음 센입천장.

00:45:37.377 --> 00:45:41.034

여러분, 혀로 입천장을 살펴보세요.

00:45:41.134 --> 00:45:45.879

그러면 앞의 윗 잇몸부터
자연스럽게 쓸면

00:45:45.979 --> 00:45:47.590

딱딱한 부분이 만지지죠?

00:45:47.690 --> 00:45:53.116

그러다가 저 뒤쪽으로 넘어가게
되면 말랑말랑한 부분 나와요.

00:45:53.216 --> 00:45:57.535

딱딱한 부분이 굉장히 넓게 있다가

00:45:57.635 --> 00:45:59.697

끝쪽에 가면 말랑말랑한
부분이 나오는데.

00:45:59.797 --> 00:46:02.802

딱딱한 입천장을 센입천장이라고
하는 거예요.

00:46:02.902 --> 00:46:06.242

그리고 말랑말랑한 입천장 부분을
여린입천장이라고 부르고.

00:46:06.342 --> 00:46:09.884

그 부분을 구개라는 표현을
씁니다, 입천장을.

00:46:09.984 --> 00:46:13.319

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개 자가
하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

00:46:13.419 --> 00:46:18.539

덜는 의미가 돼서 입의
뚜껑이 되는 거니까

00:46:18.639 --> 00:46:21.597

입뚜껑 쪽에서의 딱딱한 부분,
여린 부분이라고 해서

00:46:21.697 --> 00:46:23.610

경구개음, 연구개음이라는
표현을 쓴 거예요.

00:46:23.710 --> 00:46:27.103

놀라운 게 이것을 설명을
했더니 어떤 학생이,

00:46:27.203 --> 00:46:31.649

딱딱한 거 만져지지?

00:46:31.749 --> 00:46:34.002

만져지잖아, 안쪽으로 넣어봐.

00:46:34.102 --> 00:46:36.343

그러면 말랑말랑한
부분이 만져지잖아.

00:46:36.443 --> 00:46:43.425

그랬더니 입으로 혀를
만져보더니 이러는 거예요.

00:46:43.525 --> 00:46:48.212

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
마치 처음 안 사실처럼

00:46:48.312 --> 00:46:52.653

분명 앞쪽에는 딱딱한데
뒤쪽에는 이런 게 있다니 하면서

00:46:52.753 --> 00:46:57.502

너무 놀라워했던 친구가

하나 있었어요.

00:46:57.602 --> 00:46:59.356
그래서 저도 되게 어이없었다는.

00:46:59.456 --> 00:47:01.527
여러분, 다 알고 계셨잖아요,
입천장이 있다는 거.

00:47:01.627 --> 00:47:06.994
그래서 여린입천장 부분을 혀 뒤랑,

00:47:07.094 --> 00:47:11.867
전 세계 발음이 다 똑같은 게
아니라는 말이에요.

00:47:11.967 --> 00:47:14.177
그래서 우리나라 발음은
되게 편해, 너무 편해.

00:47:14.277 --> 00:47:16.835
여러분, 특이한 나라는 심지어,

00:47:16.935 --> 00:47:20.869
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공기를
내뿜으면서 방해는 소리잖아요.

00:47:20.969 --> 00:47:24.977
그런데 공기를 들이키면서
방해하는 소리가 있어요.

00:47:25.077 --> 00:47:29.987
예를 들면 가령 소리를 먹는 거죠.

00:47:30.087 --> 00:47:32.093
그러면 발음은 힘들잖아요.

00:47:32.193 --> 00:47:36.147
가령 옆에 있는 이 중국만 하더라도
혀를 어떻게 하나면

00:47:36.247 --> 00:47:42.019
권설음이라고 해서 혀를 이렇게
뒤집어 까서 입천장에 대려고 하는

00:47:42.119 --> 00:47:44.877
이런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.

00:47:44.977 --> 00:47:46.469
그러니까 그런 발음
힘들어요, 어색하잖아요.

00:47:46.569 --> 00:47:51.320
왜? 혀 앞쪽은 앞쪽에 닿게 만들고

00:47:51.420 --> 00:47:55.491
혀 뒤라면 뒤에 있는
여린입천장에 만나게 하면서

00:47:55.591 --> 00:47:58.029
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런

거지 이거 무슨 소리?

00:47:58.129 --> 00:48:02.292

그러니까 다른 나라 발음들을
보면 좀 어색한 발음들,

00:48:02.392 --> 00:48:06.722

힘든 발음들이 많지만 우리는 좀
편한 발음 위주로 갑니다.

00:48:06.822 --> 00:48:10.486

그래서 여린입천장 쪽하고 혀
뒤를 만나게 하는 소리.

00:48:10.586 --> 00:48:14.176

만약에 여린입천장을 혀끝에
만나게 하는 소리를 만들었다.

00:48:14.276 --> 00:48:17.325

죽으라는 소리죠, 힘듭니다.

00:48:17.425 --> 00:48:21.134

다음 목청 소리는
여기에서 내는 소리예요.

00:48:21.234 --> 00:48:26.282

그래서 한자를 정리하면 순음,
입술 순 자에서 순음.

00:48:26.382 --> 00:48:27.521

그다음에 치조음.

00:48:27.621 --> 00:48:28.579

딱딱한 구개음.

00:48:28.679 --> 00:48:29.881

말랑말랑한 연구개음.

00:48:29.981 --> 00:48:34.978

그리고 목구멍에서 이비인후과 할 때
인후가 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

00:48:35.078 --> 00:48:38.290

그래서 후 자를 써서
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

00:48:38.390 --> 00:48:41.620

다음 여기에 집어넣어야 될 텐데.

00:48:41.720 --> 00:48:45.062

집어넣는 방법을 이렇게
순서를 잡을게요.

00:48:45.162 --> 00:48:50.950

바다가자서해 마늘요리로
외우겠습니다.

00:49:01.542 --> 00:49:05.923

들어가야 될 자음들을 초성만
따면 되는 거예요.

00:49:06.023 --> 00:49:10.270

그래서 ㅂ, ㅅ, ㄱ, ㅈ,
ㅎ, ㅁ, ㄴ, ㅇ, ㄹ를

00:49:10.370 --> 00:49:11.976

순서대로 집어넣어줄 텐데

00:49:12.076 --> 00:49:15.941

먼저 여기에는 바다가자서해가
안울림 소리에 해당합니다.

00:49:16.041 --> 00:49:18.407

그래서 여기 안울림 소리에
6개를 넣어줄 거고요.

00:49:18.507 --> 00:49:21.050

그다음에 마늘요리에
해당하는 게 울림 소리니까

00:49:21.150 --> 00:49:23.476

울림 소리에 4개를
집어넣어주면 됩니다.

00:49:23.576 --> 00:49:27.214

논리적으로도 굉장히 맞아떨어져요.

00:49:27.314 --> 00:49:29.706

선생님은 군생활을 서해
쪽에서 했거든요.

00:49:29.806 --> 00:49:34.877

홍성 있는 데여서 거기 홍성
옆이 서산이나 당진이나

00:49:34.977 --> 00:49:37.715

이런 데를 함께 아우르는
그런 곳에서 했었어요.

00:49:37.815 --> 00:49:42.445

그런데 거기 서산 지역에
6쪽마늘이 되게 유명해요.

00:49:42.545 --> 00:49:44.880

그래서 거기 가면 마늘 요리.

00:49:44.980 --> 00:49:47.854

이름이 마늘 요리라고
하면 좀 이상하지만

00:49:47.954 --> 00:49:52.008

마늘을 많이 넣어서 만든 요리들,
피자 이런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.

00:49:52.108 --> 00:49:55.267

바다가자서해, 가서 뭐 먹자고?
마늘요리 먹으로 가자.

00:49:55.367 --> 00:49:56.363

이런 의미입니다.

00:49:56.463 --> 00:49:59.929

그러면 여기 초성을 잡아놓을 텐데,

00:50:00.029 --> 00:50:01.322

ㅂ의 위치를 한번
따져보도록 할게요.

00:50:01.422 --> 00:50:02.659

일단 ㅂ.

00:50:02.759 --> 00:50:05.078

세로축으로 무슨 의미일까요?

00:50:05.178 --> 00:50:07.045

당연히 입술 소리죠.

00:50:07.145 --> 00:50:10.997

입술을 만나게 했다가 만들어내는
소리니까 ㅂ은 이 라인입니다.

00:50:11.097 --> 00:50:16.227

ㅂ의 위치가 잡혔다면
방법은 어떻게 하느냐.

00:50:16.327 --> 00:50:20.968

바를 발음하기 위해서는
일단 이렇게 해야 되겠죠.

00:50:21.068 --> 00:50:22.823

파열음은 다 똑같아.

00:50:22.923 --> 00:50:26.250

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
내는 소리예요.

00:50:26.350 --> 00:50:28.052

그러면 일단 공기를
막아줘야 된다고요.

00:50:28.152 --> 00:50:30.422

여러분, 이제 해보세요.

00:50:30.522 --> 00:50:33.183

집에서 혼자 발음하고 있으면 엄마가
뭐하나 되게 궁금해할 텐데,

00:50:33.283 --> 00:50:34.377

같이 한번 해보자고.

00:50:34.477 --> 00:50:35.902

혼자 있을 테니까 더
크게 해보세요.

00:50:36.002 --> 00:50:38.431

남들이랑 같이 있으면
좀 조용히 하시고요.

00:50:38.531 --> 00:50:40.985

ㅂ을 발음할 건데
바를 발음할 거예요.

00:50:41.085 --> 00:50:42.993

바를 발음하기 위해 준비 자세.

00:50:43.093 --> 00:50:45.680
입 딱 다물어야죠.

00:50:45.780 --> 00:50:49.271
이 상태에서 입으로
숨이 쉬어집니까?

00:50:49.371 --> 00:50:51.853
안 여는 이상?

00:50:51.953 --> 00:50:53.568
완전히 막혀있어요, 폐쇄.

00:50:53.668 --> 00:50:57.605
이 상태에서 이제 비을
발음하기 위해서는 터뜨립니다.

00:50:57.705 --> 00:51:00.764
바, 바 하고 떠트리죠.

00:51:00.864 --> 00:51:05.692
그래서 비은 입술을 가지고
만들어내는 파열음이에요.

00:51:05.792 --> 00:51:09.704
그래서 비이 여기에 위치합니다.

00:51:09.804 --> 00:51:11.256
다음, ㄷ의 위치를
가보도록 할게요.

00:51:11.356 --> 00:51:15.539
다를 발음할 텐데 역시 다를
발음하기 위한 준비 자세는

00:51:15.639 --> 00:51:19.626
혀를 입 위쪽 어딘가에
대야 되겠죠.

00:51:19.726 --> 00:51:24.915
그리고 그 상태에서 입으로
숨이 쉬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.

00:51:25.015 --> 00:51:27.538
안 쉬어지죠? 완전 막았죠.

00:51:27.638 --> 00:51:30.706
지금 입 앞쪽 부분을
혀로 짹 막았어요.

00:51:30.806 --> 00:51:37.738
그 상태에서 발음하면 다,
다, 다 이렇게 되는 거죠.

00:51:37.838 --> 00:51:39.766
혀가 내려오면서 다, 이렇게
되는 건데 터지는 거예요.

00:51:39.866 --> 00:51:43.085

막았다가 다, 다 하면서
터지는 거예요.

00:51:43.185 --> 00:51:48.284
혀가 어디에 닿고 있어요? 다가.

00:51:48.384 --> 00:51:51.129
혀 앞부분이 어디를 댔습니까?

00:51:51.229 --> 00:51:52.546
여기에 딱 댔죠.

00:51:52.646 --> 00:51:56.399
여기에 혀를 딱 댔다가
다, 다, 다

00:51:56.499 --> 00:51:58.688
이렇게 되면서 터지면서
나오는 소리 맞죠.

00:51:58.788 --> 00:52:03.351
그래서 여기에서 ㄷ이 이
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.

00:52:03.451 --> 00:52:08.358
혀끝을 여기까지 뭇
잇몸에 대는 소리예요.

00:52:08.383 --> 00:52:08.503
혀끝을 뭇 잇몸에 대었다가
터뜨리면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

00:52:08.603 --> 00:52:12.968
파열음입니다.

00:52:13.068 --> 00:52:13.919
ㄷ 잡았어요.

00:52:14.019 --> 00:52:15.251
그다음에 ㄱ 나올 차례인데.

00:52:15.351 --> 00:52:18.156
가를 발음하기 위한
준비 자세 해봅시다.

00:52:24.001 --> 00:52:25.148
됐죠?

00:52:25.248 --> 00:52:27.437
그 상태에서 입으로 숨 쉬어집니까?

00:52:27.537 --> 00:52:30.470
안 쉬어져요, 절대 안
쉬어집니다, 막았으니까.

00:52:30.570 --> 00:52:32.370
그런데 어떻게 막아는지 보이시죠.

00:52:32.470 --> 00:52:35.202
이게 지금 혀인데 혀의
모양이 어떻게 뒹겨요?

00:52:35.302 --> 00:52:37.778
이렇게 됩니다.

00:52:37.878 --> 00:52:43.341
여기가 혀 뒷부분이
두꺼워지면서 이쪽을 막아요.

00:52:43.441 --> 00:52:46.437
여기가 어디인데요? 여린입천장.

00:52:46.537 --> 00:52:55.319
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들 때 이 혀의
모양을 본떠서 ㄱ을 만든 거예요.

00:52:55.419 --> 00:52:56.786
장난 아니예요.

00:52:56.886 --> 00:52:59.009
단면도를 생각하신 거예요.

00:52:59.109 --> 00:53:04.039
ㄱ의 모양을 만들 때에는
혀의 모양을 본뜬 겁니다.

00:53:04.139 --> 00:53:06.754
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
놀랍지 않습니까?

00:53:06.854 --> 00:53:11.114
그러면 ㄱ의 발음은 어디이다?

00:53:11.214 --> 00:53:15.923
여기에 보면 여린입천장과
혀 뒤를 만나게 하는데

00:53:16.023 --> 00:53:19.121
공기를 막았다 터뜨리는
소리니까 파열음이죠.

00:53:19.221 --> 00:53:21.829
그래서 바다가까지는 만들어졌어요.

00:53:21.929 --> 00:53:25.429
그다음에 나올 차례가 자입니다.

00:53:25.529 --> 00:53:27.061
ㄷ인데요.

00:53:27.161 --> 00:53:29.903
ㄷ을 발음하기 위한 준비
자세 일단 해볼까요?

00:53:30.003 --> 00:53:32.500
그러면 혀가 앞쪽에 붙어있는데.

00:53:32.600 --> 00:53:37.638
자인데 그 상태에서 입으로
숨이 쉬어지는지를 보면

00:53:37.738 --> 00:53:39.274

역시 안 쉬어줘요.

00:53:39.374 --> 00:53:44.994

그러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
자, 자, 자 이렇게 되는데.

00:53:45.094 --> 00:53:48.443

나머지 바, 다, 가랑
좀 차이가 생겨요.

00:53:48.543 --> 00:53:52.961

바, 다, 가는 터뜨리는
느낌이 확실한데

00:53:53.061 --> 00:53:56.553

자를 발음할 때는 자,
자, 자 이게 아니라

00:53:56.653 --> 00:53:58.589

속도를 빨리 하면 자가
제대로 발음이 안 됩니다.

00:53:58.689 --> 00:54:01.075

이게 아니라 자, 자, 자.

00:54:01.175 --> 00:54:09.491

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약간
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야 돼요.

00:54:09.591 --> 00:54:12.928

바, 다, 가는 탁탁
터뜨리면 되는 거지만

00:54:13.028 --> 00:54:17.119

자를 발음할 때는 자, 자, 자 하면서
약간 느리게 터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4:17.219 --> 00:54:18.323

느리게, 느리게.

00:54:18.423 --> 00:54:19.795

왜 느리게 하느냐?

00:54:19.895 --> 00:54:24.236

공기를 막았다가 느리게
열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?

00:54:24.336 --> 00:54:26.497

공기가 싹 빠져나가면서
쉴면서 나가거든요.

00:54:26.597 --> 00:54:30.898

그러면 이게 ㅈ 같은
경우에는 파열음의 성질인

00:54:30.998 --> 00:54:34.243

막았다가 연다는 성질은
가지고 있는데

00:54:34.343 --> 00:54:37.839

한 번에 터뜨리지는 않으니까

파열이라고는 하지 않고

00:54:37.939 --> 00:54:41.946

쉴면서 나가면서 공기가
이 사이로 나가면서

00:54:42.046 --> 00:54:45.616

마찰시킨다고 해서 파찰음에
속한다는 거예요, ㅈ이.

00:54:45.716 --> 00:54:50.338

그러면 ㅈ의 조음방법은
파찰음이라는 거를 알았어요.

00:54:50.438 --> 00:54:52.694

그러면 위치가 어디인가를 따져보는데

00:54:52.794 --> 00:54:54.773

좀 애매하다는 느낌이
들 수 있습니다.

00:54:54.873 --> 00:54:58.924

여기인가? 자, 자, 자.

00:54:59.024 --> 00:55:01.245

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.

00:55:01.345 --> 00:55:05.553

다자, 다자, 다자를 발음 계속하면

00:55:05.653 --> 00:55:07.977

다자, 다자, 다자.

00:55:08.077 --> 00:55:13.128

혀가 다자, 다자, 다자
앞쪽 찍었다가 뒤쪽 찍었다가

00:55:13.228 --> 00:55:15.573

위치의 많이 차이나요.

00:55:15.673 --> 00:55:19.319

다자, 다자, 다자 혀가
뒤로 살짝살짝 갑니다.

00:55:19.419 --> 00:55:24.132

그러니까 다를 발음할 때에는 혀가
윗 잇몸 쪽에 가까이 댔다가

00:55:24.232 --> 00:55:26.892

자를 발음할 때에는 입천장
쪽으로 가는 거예요.

00:55:26.992 --> 00:55:31.578

그래서 ㅈ의 위치는 경구개음
위치에 파찰음의 위치인

00:55:31.678 --> 00:55:35.714

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

00:55:35.814 --> 00:55:39.919

그다음에 ㅅ을 발음해볼 텐데.

00:55:40.019 --> 00:55:43.710

사, 사, 사를 발음하기
위한 준비 자세.

00:55:43.810 --> 00:55:47.375

그 상태에서 입으로 숨이
쉬어지는지 한번 해보면

00:55:47.475 --> 00:55:51.532

마음껏 쉬어집니다.
그렇죠?

00:55:51.632 --> 00:55:54.683

그런데 공기는 좀 좁기 때문에
췌 소리가 좀 나죠.

00:55:54.783 --> 00:55:59.601

사, 사, 사, 서해,
서해, 사, 수, 사, 수

00:55:59.701 --> 00:56:00.815
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56:00.915 --> 00:56:03.720

그러니까 스을 발음하기
위해서는 공기를 막지 않아요.

00:56:03.820 --> 00:56:07.576

그 이야기는 살짝 열어둔 상태에서
췌면서 나가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.

00:56:07.676 --> 00:56:11.416

그래서 이 스이 바로
마찰음에 속하고

00:56:11.516 --> 00:56:17.001

완전히 닿지는 않으니까 어느 위치인지
찾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.

00:56:17.101 --> 00:56:20.957

그런데 역시나 세종대왕이
한글을 만들 때

00:56:21.057 --> 00:56:24.210

사를 발음할 때 사실 아래턱이
다 위로 올라갑니다.

00:56:24.310 --> 00:56:26.072

살짝 위로 올라가는 상태인데.

00:56:26.172 --> 00:56:31.564

그래서 애가 만약에 이렇게
되어있는 상태라고 봅시다.

00:56:31.664 --> 00:56:34.249

이빨이 여기 있고 이렇게
되어있는 거라면

00:56:34.349 --> 00:56:37.847

혀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있어요.

00:56:37.947 --> 00:56:42.086

그래서 공기가 나가면서
쉴면서 나가는데,

00:56:42.186 --> 00:56:43.504

이렇게 나가는 거야.

00:56:43.604 --> 00:56:46.624

그러니까 이빨이 있으면
이빨을 타고 간다고 해서

00:56:46.724 --> 00:56:49.352

이 모양을 본떠서
스을 만든 거예요.

00:56:49.452 --> 00:56:50.713

한글 창제의 원리가.

00:56:50.813 --> 00:56:53.304

그래서 스을 발음할 때는 사, 사.

00:56:53.404 --> 00:56:57.453

입 안의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
공기가 나가면서 쉴면서 갑니다.

00:56:57.553 --> 00:57:00.677

어디를요? 이빨을
타고 간다는 거예요.

00:57:00.777 --> 00:57:06.058

이빨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치
자를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.

00:57:06.158 --> 00:57:10.895

그래서 마찰음에서의 치조음,
이 위치가 잡히는 거고요.

00:57:10.995 --> 00:57:15.159

그다음에 ㅎ의 경우에는
하, 하, 하 목청입니다.

00:57:15.259 --> 00:57:19.930

목으로 내는 소리인데 이때 이
성대 부분을 줄여서 가요.

00:57:20.030 --> 00:57:21.902

소리를 세게 만드는 겁니다.

00:57:22.002 --> 00:57:23.536

못 느껴지죠.

00:57:23.636 --> 00:57:25.944

여러분 아무리 신체
감각이 뛰어날지라도

00:57:26.044 --> 00:57:27.449

여기가 민감한 분은 별로 없어요.

00:57:27.549 --> 00:57:31.045

그래서 이 안에가 하, 하, 하 할

때마다 여기가 좁혀지는 거거든요.

00:57:31.145 --> 00:57:33.599

그래서 여기가 바로
마찰시키며 내는 소리.

00:57:33.699 --> 00:57:36.449

그래서 흥을 여기에
잡아주면 되겠습니다.

00:57:36.549 --> 00:57:39.473

이제 나머지를 채우는
거는 어렵지 않죠.

00:57:39.573 --> 00:57:41.771

ㅂ의 된 소리, ㅃ.

00:57:41.871 --> 00:57:43.390

거센 소리, ㅍ.

00:57:43.490 --> 00:57:46.282

ㄷ의 된 소리, ㄸ.

00:57:46.382 --> 00:57:48.229

거센 소리 ㅌ.

00:57:48.329 --> 00:57:51.307

ㄱ의 된 소리, ㄲ.

00:57:51.407 --> 00:57:52.592

거센 소리 ㅋ.

00:57:52.692 --> 00:57:54.335

ㅈ의 된 소리, ㅉ.

00:57:54.435 --> 00:57:56.634

거센 소리 ㅊ.

00:57:56.734 --> 00:57:59.421

ㅅ의 된 소리는 ㅆ만 있고

00:57:59.521 --> 00:58:01.040

애는 거센 소리가 없죠.

00:58:01.140 --> 00:58:06.036

흥의 경우에는, 어떤 표에 보면 칸이
하나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요.

00:58:06.136 --> 00:58:08.249

이거를 굳이 예사, 된으로
쪼개지 않는다고 봐서.

00:58:08.349 --> 00:58:09.724

그다음 보겠습니다.

00:58:09.824 --> 00:58:11.636

울림 소리가 들어갈 차례인데.

00:58:11.736 --> 00:58:14.066

울림 소리는 마늘요리
순서대로 가면 됩니다.

00:58:14.166 --> 00:58:16.927

ㅁ, ㄴ, ㅇ, ㄹ로
가면 되는 거죠.

00:58:17.027 --> 00:58:18.596

먼저 ㅁ 발음해볼까요?

00:58:18.696 --> 00:58:20.871

당연히 어느 위치에서
발음이 됩니까?

00:58:20.971 --> 00:58:24.079

입술 마, 마, 마
이렇게 되는 거니까요.

00:58:24.179 --> 00:58:26.200

그런데 애는 터지는
소리는 아니에요.

00:58:26.300 --> 00:58:30.637

비음인데 코를 막으면 방해받는
소리라고 말씀드렸죠.

00:58:30.737 --> 00:58:32.651

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됩니다.

00:58:36.198 --> 00:58:37.890

맹해지죠, 소리가.

00:58:37.990 --> 00:58:40.782

마, 마, 마

00:58:40.882 --> 00:58:45.641

코를 막았을 때 소리가 탁 맹해지는
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

00:58:45.741 --> 00:58:50.510

그래서 ㅁ은 어디가 된다?

00:58:50.610 --> 00:58:52.825

여기.

00:58:52.925 --> 00:58:55.953

입술을 막았다가 만들어내는
소리인데 코를 통하기 때문에

00:58:56.053 --> 00:58:57.184

ㅁ은 여기.

00:58:57.284 --> 00:58:58.929

그다음에 ㄴ 할 차례.

00:58:59.029 --> 00:59:01.219

혀 위치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?

00:59:01.319 --> 00:59:06.054

나, 나, 나 할 때 혀가 이렇게
돼서 어디를 치고 있어요?

00:59:06.154 --> 00:59:07.402

윗 잇몸 쪽이죠.

00:59:07.502 --> 00:59:11.641

그런데 나를 발음하기
위해 코를 막으면

00:59:11.741 --> 00:59:17.041

나, 나, 나, 나 나
이렇게 되는 거죠.

00:59:17.141 --> 00:59:18.580

코가 확실히 멍해지네요.

00:59:18.680 --> 00:59:20.794

그래서 공기가 여기서 통하기 때문에

00:59:20.894 --> 00:59:23.235

방해를 주면 제대로
소리가 안 납니다.

00:59:23.335 --> 00:59:25.047

ㄴ은 여기예요.

00:59:25.147 --> 00:59:30.259

그다음에 ㅇ의 위치가 어디일까요?

00:59:30.359 --> 00:59:32.255

ㅇ의 위치는 여기예요.

00:59:32.355 --> 00:59:38.553

이게 여러분, 납득이 돼야
되는데 ㅇ이 비음이냐.

00:59:38.653 --> 00:59:39.656

볼까요?

00:59:39.756 --> 00:59:43.923

아~

00:59:44.023 --> 00:59:45.847

제가 코 막았다 열었다
하고 있는데.

00:59:45.947 --> 00:59:47.594

아~

00:59:47.694 --> 00:59:49.142

멍해집니까?

00:59:49.242 --> 00:59:51.192

안 멍해지는 것 같은데
비음 아니지 않나?

00:59:51.292 --> 00:59:53.992

그리고 ㅇ이 왜 여기
연구개음이라고 하지?

00:59:54.092 --> 01:00:02.296

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
있는 게 뭐냐면

01:00:02.396 --> 01:00:05.473

선생님이 지금 ㅇ을
발음하지 않았잖아요.

01:00:05.573 --> 01:00:08.025

발음 안 했죠?

01:00:08.125 --> 01:00:11.902

왜냐하면 선생님 아를 발음했지
ㅇ을 발음하지 않았어요.

01:00:12.002 --> 01:00:13.778

그새 까먹은 거 아니겠죠?

01:00:13.878 --> 01:00:17.170

초성에 있는 ㅇ은
음가가 있다, 없다?

01:00:17.270 --> 01:00:18.219

없다.

01:00:18.319 --> 01:00:22.195

그러면 아, 라고 발음해봤자
ㅇ을 발음하는 게 아니라

01:00:22.295 --> 01:00:24.555

모음인 ㅏ를 발음하고 있었던 거죠.

01:00:24.655 --> 01:00:29.993

그러면 여러분은 중성에
있는 ㅇ은 음가가 있으니까

01:00:30.093 --> 01:00:32.162

소리 값이 있으니까
그거로 발음해봐야겠다.

01:00:32.262 --> 01:00:33.585

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

01:00:33.685 --> 01:00:39.731

이제부터 양을 발음하는데 이때
코를 막지 않은 상태에서

01:00:39.831 --> 01:00:42.146

앙, 앙, 앙 이렇게 발음하는 거랑

01:00:42.246 --> 01:00:44.860

코를 막은 상태에서 앙,
앙, 앙 발음하는 거랑

01:00:44.960 --> 01:00:45.919

한번 비교해보세요.

01:00:46.019 --> 01:00:48.121

보를 막고 한번 발음해보세요.

01:00:48.221 --> 01:00:52.976

악, 악, 악 악이
나오죠, 갑자기?

01:00:56.439 --> 01:00:59.765

그 상태에서 악이 나올 때 그
혀의 위치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?

01:00:59.865 --> 01:01:04.117
혀가 악, 악, 악 이렇게 되죠.

01:01:04.217 --> 01:01:05.401
어디를 막아줘요?

01:01:05.501 --> 01:01:06.828
이게 지금 혀예요.

01:01:06.928 --> 01:01:10.978
이쪽에 코가 있고
혀가 이렇게 있는데

01:01:11.078 --> 01:01:13.312
이렇게 되잖아요,
혀가 어떻게 되죠?

01:01:13.412 --> 01:01:16.292
뒤쪽이 올라갑니다,
올라가면서 어디를 만나냐면

01:01:16.392 --> 01:01:20.326
마치 가, 가, 가 할 때
위치의 닿는 거랑 비슷하게

01:01:20.426 --> 01:01:22.808
악, 악, 악 이러면서 닿는 거죠.

01:01:22.908 --> 01:01:27.124
중성에 있는 ㅇ은, 초성은 어차피
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.

01:01:27.224 --> 01:01:29.533
중성에 있는 ㅇ을 이야기하는
거예요, 지금.

01:01:29.633 --> 01:01:33.548
그래서 중성에 있는 ㅇ은 코를
막으면 방해받는 소리 비음이고.

01:01:33.648 --> 01:01:37.069
애는 위치가 여기, 연구개음입니다.

01:01:37.169 --> 01:01:39.870
그런데 이 ㅇ의 위치를
너무 못 찾아.

01:01:39.970 --> 01:01:42.692
그래서 논리적으로 원리를
설명을 드렸어요.

01:01:42.792 --> 01:01:48.281
그다음에 마지막 큰
라, 라, 라, 라, 라

01:01:48.381 --> 01:01:51.034
막으나 여나 상관없이
발음 잘 됩니다.

01:01:51.134 --> 01:01:52.733
코 안 통합니다.

01:01:52.833 --> 01:01:56.537
그냥 유성음 중에서는 입으로만 통하는
소리가 바로 유음이 되는 것이고.

01:01:56.637 --> 01:02:01.445
이 유음의 경우에는 위치가 라,
라, 라, 라, 라 하면서

01:02:01.545 --> 01:02:04.424
역시 치조음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.

01:02:04.524 --> 01:02:06.638
정리 됐습니까?

01:02:06.738 --> 01:02:11.677
그래서 여러분, 이거 표부터
그릴 수 있어야 돼요.

01:02:11.777 --> 01:02:15.090
그리고 채우는 작업도
하셔야 됩니다.

01:02:15.190 --> 01:02:19.162
정리 다시 한 번 해볼게요.

01:02:19.262 --> 01:02:20.917
파열음이 있었죠.

01:02:21.017 --> 01:02:23.478
지금 파열음, 파찰음,
마찰음이 다 무슨 소리라고요?

01:02:23.578 --> 01:02:25.734
안울림 소리.

01:02:25.834 --> 01:02:28.162
그다음에 비음이나
유음이 울림 소리.

01:02:28.262 --> 01:02:30.148
그래서 애네들은 무성음,

01:02:30.248 --> 01:02:31.915
애네를 유성음이라고 했죠.

01:02:32.015 --> 01:02:35.064
먼저 첫 번째를 소리는
바, ㅂ입니다.

01:02:35.164 --> 01:02:36.153
ㅂ의 위치는 어디죠?

01:02:36.253 --> 01:02:40.693
입술을 닫았다가 열어내는
소리이면서 무슨 음에 속합니까?

01:02:40.793 --> 01:02:41.948

파열음에 속하는 거죠.

01:02:42.048 --> 01:02:43.933
바 하고 터뜨립니다.

01:02:44.033 --> 01:02:47.453
다음 다, 다, 다 다의
위치는 어디였습니까?

01:02:47.553 --> 01:02:50.311
다는 치조음이죠.

01:02:50.411 --> 01:02:54.504
여기에 있는 윗 잇몸과
혀끝이 만나는 소리입니다.

01:02:54.604 --> 01:02:56.859
여기에 딱, 혀가
댔다 내는 소리죠.

01:02:56.959 --> 01:03:02.010
그리고 ㄷ의 위치는 성질은
파열음이죠, 역시.

01:03:02.110 --> 01:03:04.567
다음 바, 다, 가.

01:03:04.667 --> 01:03:06.859
가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?

01:03:06.959 --> 01:03:08.790
혀가 이렇게 되는 거였죠?

01:03:08.890 --> 01:03:11.527
이 뒤쪽이 이렇게 만나면서
여기를 만납니다.

01:03:11.627 --> 01:03:12.813
위치는 여기죠.

01:03:12.913 --> 01:03:14.154
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죠?

01:03:14.254 --> 01:03:16.470
부드러운 구개음,
연구개음 소리입니다.

01:03:16.570 --> 01:03:20.905
그리고 ㄱ 역시 터뜨리는
소리니까 파열음이죠.

01:03:21.005 --> 01:03:23.803
다음 바, 다, 가, 자.

01:03:23.903 --> 01:03:28.956
자는 위치가 ㄷ보다는 조금
뒤로 간다고 했습니다.

01:03:29.056 --> 01:03:33.238
그래서 자는 여기에 있는 센
입천장, 좀 넓은 부분인데.

01:03:33.338 --> 01:03:35.539
조금 앞쪽을 만나게 하는 소리죠.

01:03:35.639 --> 01:03:39.688
혀 앞부분이 자, 자 하면서
만나는데 터뜨리지는 않고

01:03:39.788 --> 01:03:43.815
살짝 쓸면서 공기를 내뿜기
때문에 ㅈ이 무슨 음이다?

01:03:43.915 --> 01:03:45.468
파찰음이었죠.

01:03:45.568 --> 01:03:47.742
그다음에 서, 서.

01:03:47.842 --> 01:03:50.719
스을 발음하기 위해서는
아래 부분이 올라와요.

01:03:50.819 --> 01:03:54.692
그리고 혀가 좀 많이 막아주는
상태에서 공기가 속 나가다가

01:03:54.792 --> 01:03:58.374
이렇게 이빨 모양을 쓸면서
나갔다고 해서 ㅅ이죠.

01:03:58.474 --> 01:04:01.399
그래서 이 ㅅ은 마찰음에 속하고요.

01:04:01.499 --> 01:04:04.903
바다가자서해, 해, 해, 해.

01:04:05.003 --> 01:04:08.662
하, 하, 하 하면서 여기를
좁혀준다고 했습니다.

01:04:08.762 --> 01:04:11.908
그래서 ㅎ 같은 경우에는
목청 소리이면서

01:04:12.008 --> 01:04:14.288
그다음에 무슨 음이다?
마찰음인 거죠.

01:04:14.388 --> 01:04:16.537
그래서 지금 색깔 좀
다른 거 보이세요?

01:04:16.637 --> 01:04:19.179
애가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.

01:04:19.279 --> 01:04:21.657
맨 앞에 나와있는 게 순음.

01:04:21.757 --> 01:04:23.643
다음에 치조음.

01:04:23.743 --> 01:04:27.723

그다음에 경구개음, 연구개음,
그다음에 후음의 순서예요.

01:04:27.823 --> 01:04:29.925

다음 비음이 있었죠.

01:04:30.025 --> 01:04:33.726

비음도 위치를 보면 마늘요리인데,

01:04:33.826 --> 01:04:36.090

ㅁ은 어느 위치입니까?

입술 소리죠.

01:04:36.190 --> 01:04:40.932

그다음에는 나, 나, 나

할 때 ㄴ은 어디죠?

01:04:41.032 --> 01:04:43.989

치조음이죠, 비음이면서.

01:04:44.089 --> 01:04:46.125

치조음은 ㄴ 저기 가야겠죠.

01:04:46.225 --> 01:04:49.160

그다음 역시 ㅁ, ㄴ

전부 다 비음이었습니다.

01:04:49.260 --> 01:04:53.913

마늘요, 할 때 물론

요 할 때 ㅇ도 없는 거야.

01:04:54.013 --> 01:04:56.081

소리 없는 거지만 초성만 따면서

01:04:56.181 --> 01:04:58.285

지금 어디 위치인지 알려주기

위해서 잡았던 거죠.

01:04:58.385 --> 01:05:01.022

종성에 있는 ㅇ, 아까

발음했더니 어디에 닿았습니까?

01:05:01.122 --> 01:05:03.173

앙, 하면서 여기에 닿았던 거죠.

01:05:03.273 --> 01:05:06.344

그래서 여린입천장 부분에.

01:05:06.444 --> 01:05:10.650

ㅇ도 비음이면서 여린입천장

소리였습니다.

01:05:10.750 --> 01:05:15.071

그다음에 유일한 유음이었던

ㄹ은 라, 라, 라, 라

01:05:15.171 --> 01:05:17.826

어디에 위치합니까? 치조음 위치.

01:05:17.926 --> 01:05:19.837

그리고 유음이었죠.

01:05:19.937 --> 01:05:24.249

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국어의
자음 체계를 딱 봤을 때

01:05:24.349 --> 01:05:26.758

어느 음이 제일 발달해있다는
거를 알 수 있어요?

01:05:26.858 --> 01:05:30.733

치조음 계열이 제일 양이 많다는
거를 알 수 있습니다.

01:05:30.833 --> 01:05:33.661

그리고 성질로 따지게 되면

01:05:33.761 --> 01:05:35.958

조음 방법으로 파열음이 많은데,

01:05:36.058 --> 01:05:37.892

파열음 3개밖에 없는데요?

01:05:37.992 --> 01:05:40.888

아니요, 이렇게 있으니까요.

01:05:40.988 --> 01:05:42.526

확실히 파열음이 많아지죠.

01:05:42.626 --> 01:05:46.139

그래서 파열음의 개수는 3개가
아니예요, 9개예요.

01:05:46.239 --> 01:05:49.227

애네들에 대한 된소리와
거센 소리 체계.

01:05:49.327 --> 01:05:52.008

역시 된소리, 거센
소리까지 잡게 되면

01:05:52.108 --> 01:05:54.229

이렇게 국어의 자음 수가 나옵니다.

01:05:54.329 --> 01:06:01.146

그러면 이렇게 잡힌 자음의
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?

01:06:01.246 --> 01:06:05.891

19개가 잡히네요.
맞습니까?

01:06:09.777 --> 01:06:14.588

국어의 자음의 개수는
총 19개입니다.

01:06:14.688 --> 01:06:22.925

좀 더 분석을 하면 여기에 나와있는
예사소리는 몇 개가 되는 거죠?

01:06:23.025 --> 01:06:25.000

6개.

01:06:25.100 --> 01:06:32.091
거기에 된소리 몇 개? 5개.

01:06:32.191 --> 01:06:39.296
거센소리 크, 트, 프,
츠 4개 잡히는 거죠.

01:06:39.396 --> 01:06:46.934
거기다가 울림 소리 하면 4개
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.

01:06:47.034 --> 01:06:49.110
그래서 다 합쳐서 총 몇 개?
19개.

01:06:49.210 --> 01:06:50.257
여기서 잠깐.

01:06:50.357 --> 01:06:59.201
학교 선생님께서 기준을 잘못
잡는 분도 있을 거예요.

01:06:59.301 --> 01:07:03.211
그래서 울림 소리인
ㄹ, ㄹ, ㄴ, ㅇ도

01:07:03.311 --> 01:07:06.285
예사소리에 집어넣어서 설명하시는
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

01:07:06.385 --> 01:07:07.846
내신이면 그렇게 따라가시고요.

01:07:07.946 --> 01:07:12.955
울림 소리는 원래 예사 소리라는 게
삼지적 상관속을 가지고 있어야지만

01:07:13.055 --> 01:07:16.007
이렇게 체계를 갖춰야지만 예사
소리라는 명칭을 쓰는 건데.

01:07:16.107 --> 01:07:20.213
혹시 울림 소리도 기본
글자처럼 보이니까

01:07:20.313 --> 01:07:22.627
이렇게 예사 소리처럼
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

01:07:22.727 --> 01:07:26.514
내신 풀 때는 선생님 설명에
맞게끔 가면 되겠습니다.

01:07:26.614 --> 01:07:29.912
이제 그러면 모음으로
가보도록 할게요.

01:07:30.012 --> 01:07:32.880
모음은 단모음 그리고

이중모음이라는 게 나와있는데

01:07:32.980 --> 01:07:36.411
단모음 먼저 보도록 합니다.

01:07:36.511 --> 01:07:38.315
단모음 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.

01:07:38.415 --> 01:07:45.549
먼저 3줄을 아래로 그려주시고

01:07:45.649 --> 01:07:47.657
그다음에 오른쪽으로
4줄을 그어주는데

01:07:47.757 --> 01:07:51.566
그중에서 2칸씩 먹어주는 게
하나씩 위에 나와있어야 돼요.

01:07:51.666 --> 01:07:55.895
각각을 따져보면,
그냥 알려드릴게요.

01:07:55.995 --> 01:07:58.823
이쪽은 혀의 높낮이를
이야기하는 거고.

01:07:58.923 --> 01:08:01.244
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게
되면 혀의 앞, 뒤.

01:08:01.344 --> 01:08:03.525
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입술의 모양.

01:08:03.625 --> 01:08:05.434
그래서 평순, 원순
이런 식으로 갑니다.

01:08:05.534 --> 01:08:07.131
일단 표를 보고 가도록 하죠.

01:08:07.231 --> 01:08:09.352
혀의 높이를 갑니다.

01:08:09.452 --> 01:08:12.379
혀의 높이는 혀의 최고점이
어디에 위치한 상태로

01:08:12.479 --> 01:08:14.399
공기를 내뿜는지를 물어보는 거죠.

01:08:14.499 --> 01:08:18.519
그래서 혀의 높이가 높다면
고모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.

01:08:18.619 --> 01:08:21.033
맨 아래라고 하면 저모음.

01:08:21.133 --> 01:08:23.518
중간이다, 그러면 중모음이라는
표현을 쓰는 거예요.

01:08:23.618 --> 01:08:24.629
어려운 거는 아니고요.

01:08:24.729 --> 01:08:29.506
그다음 맨 위를 보면 혀의
최고점이라는 게 뭐냐면

01:08:29.606 --> 01:08:32.461
만약에 혀가 이렇게 되어있다면
여기가 최고점이에요.

01:08:32.561 --> 01:08:35.768
그런데 혀가 이렇게 되어있다면
여기가 최고점이 되는 겁니다.

01:08:35.868 --> 01:08:38.129
가장 높은 위치를 어디를 따지느냐.

01:08:38.229 --> 01:08:40.663
혀 자체는 어느 정도
길이는 가지고 있잖아요.

01:08:40.763 --> 01:08:43.232
그래서 최고점은 이렇게
했을 때 여기

01:08:43.332 --> 01:08:45.174
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,
이렇게 보면 돼요.

01:08:45.274 --> 01:08:48.512
혀의 앞뒤가 전설모음,
앞 전 자고.

01:08:48.612 --> 01:08:50.315
후설모음, 뒤 후 자잖아요.

01:08:50.415 --> 01:08:53.834
그러니까 혀가 앞쪽에
위치하는 소리들이 있고

01:08:53.934 --> 01:08:56.236
혀가 뒤쪽에 위치하는
소리들이 있다는 겁니다.

01:08:56.336 --> 01:09:00.436
또 입술의 모양이 평순,
입술 순 자예요.

01:09:00.536 --> 01:09:02.730
그래서 평순은 둥글지 않다는 거고.

01:09:02.830 --> 01:09:04.882
원순은 둥글다는 건데.

01:09:04.982 --> 01:09:07.865
원순 되게 적극적으로
둥글어야 돼요.

01:09:07.965 --> 01:09:10.524

예를 들면 아~

01:09:10.624 --> 01:09:14.613

이거는 평순모음일까요,
원순모음일까요?

01:09:14.713 --> 01:09:15.627

아~

01:09:15.727 --> 01:09:19.599

이거는 둥근 것 같으니까
이거 원순모음이야.

01:09:19.699 --> 01:09:20.528

아니요.

01:09:20.628 --> 01:09:21.616

오~

01:09:21.716 --> 01:09:22.678

완전 둥글쥬?

01:09:22.778 --> 01:09:25.617

그래서 원순모음은 되게
적극적으로 둥근 놈들이에요.

01:09:25.717 --> 01:09:30.730

여기에 해당하는 것을
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.

01:09:43.844 --> 01:09:46.294

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9:46.394 --> 01:09:49.874

키위는곤 게회먹고 배탈.

01:09:49.974 --> 01:09:52.009

소화에 키위가 그렇게 좋아요.

01:09:52.109 --> 01:09:53.488

그래서 키위는곤.

01:09:53.588 --> 01:09:57.467

그런데 옆으로 가는 갑각류는 삶아
먹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

01:09:57.567 --> 01:09:59.380

회로 먹으면 위험합니다.

01:09:59.480 --> 01:10:01.913

그래서 게회먹고 배탈.

01:10:02.013 --> 01:10:04.176

그래서 여기 사이는 왜 비웠느냐?

01:10:04.276 --> 01:10:05.083

배탈났잖아요.

01:10:05.183 --> 01:10:06.787

그러니까 배 응~ 탈 응~

01:10:06.887 --> 01:10:07.855

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

01:10:07.955 --> 01:10:09.529

그래서 여기 지금 두
자리를 비워둬야 됩니다.

01:10:09.629 --> 01:10:11.926

그래서 키위는곤 계회 먹고 배탈.

01:10:12.026 --> 01:10:18.485

여기서 딱 중성들만 따 보니까
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.

01:10:18.585 --> 01:10:20.564

중성들만 따 보니까 어떻게 된다?

01:10:20.664 --> 01:10:31.275

키위는곤 계회 먹고 배탈.

01:10:31.375 --> 01:10:32.811

이렇게 채워진다는 겁니다.

01:10:32.911 --> 01:10:35.446

가만히 보면 이거 3개
연속으로 발음했을 때

01:10:35.546 --> 01:10:38.787

ㅣ, ㄴ, ㅁ

01:10:38.887 --> 01:10:41.522

하면서 입이 점점 벌어지는
거를 볼 수 있어요.

01:10:41.622 --> 01:10:42.964

점점 넓어집니다.

01:10:43.064 --> 01:10:45.902

즉 혀가 내려간다는 것이 턱도
같이 내려간다는 거거든요.

01:10:46.002 --> 01:10:48.281

그래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

01:10:48.381 --> 01:10:51.888

입의 공간이 어떻게 된다?
열린다는 겁니다.

01:10:51.988 --> 01:10:55.248

그래서 용어 다른 게
하나 더 있어.

01:10:55.348 --> 01:10:59.104

뭐냐면 개구도, 입이 열리는
정도에 따라서 나눠서

01:10:59.204 --> 01:11:02.352

고모음은 입이 좀 많이
닫혀있다고 보는 거예요.

01:11:02.452 --> 01:11:08.274

그래서 이거를
폐모음이라고 부릅니다.

01:11:08.374 --> 01:11:10.134
닫힐 폐 자를 써요.

01:11:10.234 --> 01:11:13.036
그다음에 저모음의 경우에는
입이 열려있잖아요.

01:11:13.136 --> 01:11:15.752
그러니까 혀가 내려갔다는 거는
아래 턱도 내려갔다는 이야기고

01:11:15.852 --> 01:11:17.967
그만큼 입의 공간이
열려있다는 거니까

01:11:18.067 --> 01:11:20.660
열릴 개 자를 써서 개모음,

01:11:20.760 --> 01:11:23.618
좀 이름은 이상하기는 하지만
이런 용어가 있어요.

01:11:23.718 --> 01:11:25.540
그래서 개모음이라고 이야기하고

01:11:25.640 --> 01:11:32.452
애는 반만 열렸다고 해서
반개모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.

01:11:32.552 --> 01:11:35.159
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
기준도 있어요.

01:11:35.259 --> 01:11:39.688
그다음에 ㅣ, ㅟ,
ㅡ, ㅓ 이렇게 가면

01:11:39.788 --> 01:11:45.548
이 위의 차이는 사실 혀의
위치가 앞뒤를 지금 보세요.

01:11:45.648 --> 01:11:49.043
ㅣ, ㅟ 했을 때 혀가 막 굉장히
뒤로 간 느낌은 없을 거예요.

01:11:49.143 --> 01:11:51.716
그런데 ㅣ, ㅟ 하다가 ㅡ 하더니

01:11:51.816 --> 01:11:53.066
갑자기 혀가 쪽 빠지죠.

01:11:53.166 --> 01:11:56.066
ㅓ 하면 더 빠지고요.
맞습니까?

01:11:56.166 --> 01:12:01.061
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혀가
앞쪽이 움직이는 전설모음이고

01:12:01.161 --> 01:12:03.871

애네는 뒤쪽에서 움직이는
후설모음이라는 점이고.

01:12:03.971 --> 01:12:08.687

그다음에 애네들의
모양을 한번 보세요.

01:12:08.787 --> 01:12:14.936

그러면 ㄴ, ㄷ, ㄱ, ㅋ 하면서
입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둥글어요.

01:12:15.036 --> 01:12:17.374

그러니까 애네들이 바로
원순모음에 해당하고

01:12:17.474 --> 01:12:20.303

나머지 애네 6개는 평순모음.

01:12:20.403 --> 01:12:23.356

둥글지 않다고 평순모음으로
처리하는 겁니다.

01:12:23.456 --> 01:12:24.393

표 어렵지 않죠?

01:12:24.493 --> 01:12:26.212

일단 그려놓는 거 여러분이 하시고

01:12:26.312 --> 01:12:30.797

키위는굳 게희 먹고 배탈로 외워준
다음에 딱 채워주는 거.

01:12:30.897 --> 01:12:32.589

모음 되게 쉽습니다.

01:12:32.689 --> 01:12:47.313

그런데 단모음의 정의가 이거거든요.

01:12:47.413 --> 01:12:52.087

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
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야.

01:12:52.187 --> 01:12:56.507

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
ㄴ나 ㄷ 이런 거.

01:12:56.607 --> 01:12:57.757

ㄴ, ㄷ 발음해볼까요?

01:12:57.857 --> 01:13:00.386

아, 아, 아 입술 변화 없습니다.

01:13:00.486 --> 01:13:02.374

발음 계속 하면서 아, 아, 아

01:13:02.474 --> 01:13:03.725

오, 오, 오

01:13:03.825 --> 01:13:04.843

우, 우, 우

01:13:04.943 --> 01:13:06.241

으, 으, 으

01:13:06.320 --> 01:13:07.340

이, 이, 이

01:13:07.440 --> 01:13:09.034

애, 애, 애

01:13:09.134 --> 01:13:12.646

다 괜찮은데 의심해야 되는
게 이 부분 아니에요?

01:13:12.746 --> 01:13:19.119

여러분, 이거 입술 변화
없이 발음할 수 있습니까?

01:13:22.170 --> 01:13:24.013

이렇게 발음한다고요?

01:13:24.113 --> 01:13:25.467

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죠?

01:13:25.567 --> 01:13:28.783

위, 외 하면서 입술 짹짹
벌려주면서 발음할 텐데.

01:13:28.883 --> 01:13:30.108

그렇지 않습니까?

01:13:30.208 --> 01:13:33.873

그러면 단모음이라는 게 있고
이어서 우리가 공부할 게

01:13:33.973 --> 01:13:40.339

이중모음인데, 이중모음은 입술의
변화가 있는 거거든요.

01:13:40.439 --> 01:13:42.415

혀나 입술의 변화가
움직일 수 있거든요.

01:13:42.515 --> 01:13:45.388

그러면 애 이중모음이라고
해야 되는 거 아니냐.

01:13:45.488 --> 01:13:47.228

아직까지는 단모음이에요.

01:13:47.328 --> 01:13:50.473

현대국어에서 단모음
체계표에 넣어준단 말이야.

01:13:50.573 --> 01:13:54.068

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
거의 끝쪽인데요.

01:13:54.168 --> 01:13:58.834

어문규정 공부하면서는

표준발음법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

01:13:58.934 --> 01:14:01.305

그때 나, 귀에
대한 설명을 합니다.

01:14:01.405 --> 01:14:03.316

뭐라고 명시하냐면
이렇게 이야기해요.

01:14:03.416 --> 01:14:08.553

나나 귀는 단모음인데 이중모음처럼
발음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.

01:14:08.653 --> 01:14:10.295

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,

01:14:10.395 --> 01:14:14.237

발음할 수도 있다는 거지
발음하는 것이 맞고

01:14:14.337 --> 01:14:15.893

발음 안 하는 거는
틀린 거는 아니다.

01:14:15.993 --> 01:14:21.594

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
이 단어를 가지고

01:14:21.694 --> 01:14:26.628

이렇게 발음하면 되게 이상하게
발음한다고 여길 거예요.

01:14:26.728 --> 01:14:34.423

그다음에 이렇게 발음하면 되게
이상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.

01:14:34.523 --> 01:14:41.282

그다음에 이렇게 발음하면 되게
이상하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.

01:14:41.382 --> 01:14:43.769

아니요, 그런데 그게
원칙 발음이에요.

01:14:43.869 --> 01:14:45.948

현대인 중에 누가
그렇게 발음합니까?

01:14:46.048 --> 01:14:51.419

발음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나
과거에는 그렇게 발음을 해왔던 거고

01:14:51.519 --> 01:14:57.792

그래서 강원도 산간 지역이나
제주도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는

01:14:57.892 --> 01:15:01.686

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단모음에
가깝게 발음을 하세요.

01:15:01.786 --> 01:15:04.508
실제로 보면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.

01:15:04.608 --> 01:15:07.434
이렇게 발음하신대요.

01:15:07.534 --> 01:15:09.892
그런데 상당히 그쪽에 가까운데,

01:15:09.992 --> 01:15:13.603
급속도로 갑자기 애네
단모음이 이중모음 쪽으로

01:15:13.703 --> 01:15:15.904
발음이 되고 있는
상태입니다, 현재에 와서.

01:15:16.004 --> 01:15:20.305
그래서 아직까지는 단모음 표에
넣어줘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

01:15:20.405 --> 01:15:26.288
일단 한 세대가 저승에 가면 아마
애는 이중모음으로 빠질 거예요.

01:15:26.388 --> 01:15:28.508
이중모음 표로 넘어올 겁니다.

01:15:28.608 --> 01:15:30.111
아직까지는 단모음체계 표이고

01:15:30.211 --> 01:15:34.153
표준발음법에서는 원칙
발음은 변화 없이,

01:15:34.253 --> 01:15:36.979
그러나 여러분 원하는
대로 그냥 발음할 때

01:15:37.079 --> 01:15:41.455
너, 쉬다, 또는 참외라고
해도 문제는 없다고

01:15:41.555 --> 01:15:44.242
이중모음처럼 발음을 해도 문제는
없다고 제시를 합니다.

01:15:44.342 --> 01:15:49.352
그래서 단모음은 이렇게
10개가 있었고요.

01:15:54.568 --> 01:15:59.411
국어의 모음은 단모음이
몇 개가 있었다?

01:15:59.511 --> 01:16:00.801
10개가 있었습니다.

01:16:00.901 --> 01:16:03.304
다음 이중모음이 이제 나오는데,

01:16:03.404 --> 01:16:06.156
이중모음 전에 위치를 알려드릴게요.

01:16:06.256 --> 01:16:09.427
키위, 위, 위, 위

01:16:09.527 --> 01:16:13.273
혀의 높낮이가 높이는 똑같고요.

01:16:13.373 --> 01:16:14.806
거의 앞쪽이에요.

01:16:14.906 --> 01:16:17.329
키위, 키위 살짝 뒤로 갑니다.

01:16:17.429 --> 01:16:19.833
최전방에 ㅣ 모음이 있어요.

01:16:19.933 --> 01:16:22.763
그다음에 키위는,
는 할 때 는이 쪽 빠지죠.

01:16:22.863 --> 01:16:24.230
는, 는, 는

01:16:24.330 --> 01:16:25.773
굳, 굳, 굳

01:16:25.873 --> 01:16:29.290
그러니까 키위는 굳을
연속적으로 발음할 때는

01:16:29.390 --> 01:16:36.010
입모양의 공간은 옆에
있는 입공간은 비슷해요.

01:16:36.110 --> 01:16:38.462
ㅣ, ㄱ, ㄷ, ㅡ
딱 좁은 상태이고.

01:16:38.562 --> 01:16:41.051
그 상태에서 혀만 뒤쪽으로
쭉 빠지는 거예요, 뒤로.

01:16:41.151 --> 01:16:42.566
그다음에 게.

01:16:42.666 --> 01:16:46.888
ㅣ, ㄱ, ㄷ, ㅡ 하다가 게
발음할 때 입이 벌어지죠.

01:16:46.988 --> 01:16:49.345
꺀, 꺀, 꺀
입이 벌어집니다.

01:16:49.445 --> 01:16:50.911
그러면 턱이 내려갔다는 이야기에요.

01:16:51.011 --> 01:16:52.053
중모음이에요.

01:16:52.153 --> 01:16:55.462

계회, 계회 이것도
거의 위치 비슷해요.

01:16:55.562 --> 01:16:59.156

그다음에 먹 하려하고 할 때
먹 하더니 혀가 뒤로 쪽 빠집니다.

01:16:59.256 --> 01:17:01.844

계회 먹고, 더 빠지고요.

01:17:01.944 --> 01:17:05.017

그다음에 배 할 때는
입이 더 벌어지고

01:17:05.117 --> 01:17:07.810

그다음에 탈인데, 탈.

01:17:07.910 --> 01:17:11.822

입이 쪽 벌어지면서
혀도 쪽 빠집니다.

01:17:11.922 --> 01:17:14.871

그래서 배탈 하면서
이쪽으로 나와요.

01:17:14.971 --> 01:17:16.019

위치를 보게 되면.

01:17:16.119 --> 01:17:17.727

그래서 이제 모습 사각도.

01:17:17.827 --> 01:17:20.685

모음 삼각도를 그릴 때도 있고
모음 사각도를 그릴 때도 있는데

01:17:20.785 --> 01:17:24.806

대충 위치는 이렇게 잡혀서 여기에
있는 이 5개가 전설모음,

01:17:24.906 --> 01:17:26.853

뒤에 5개가 후설모음.

01:17:26.953 --> 01:17:30.069

고모음, 중모음, 저모음
이렇게 되는 거고요.

01:17:30.169 --> 01:17:33.982

그다음에 원순모음은 이렇게 해서
4개만 딱 잡히는 겁니다.

01:17:34.082 --> 01:17:37.159

이중모음을 나누는
것은, 마무리인데요.

01:17:37.259 --> 01:17:38.970

이중모음은 좀 간단합니다.

01:17:39.070 --> 01:17:42.744

단모음 2개만 잘 기억하면 돼요.

01:17:42.844 --> 01:17:45.612

이중모음을 만들기
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데

01:17:45.712 --> 01:17:48.520

지금 우리가 공부했던
단모음 10개.

01:17:48.620 --> 01:17:54.539

그리고 정식 모음은 아니고 재료로만 쓰일
수 있는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.

01:17:54.639 --> 01:17:57.385

그래서 국어의 반모음은 총
두 가지가 있습니다.

01:17:57.485 --> 01:18:01.573

ㅣ 단모음과 ㄴ, ㄷ
반모음이 있어요.

01:18:01.673 --> 01:18:09.854

앞에 표를 보면 ㄴ나
ㄷ인데 위치를 대충 보면

01:18:09.954 --> 01:18:13.424

이 ㅣ 모음을 되게 짧게
발음하는 방식이라고 하면

01:18:13.524 --> 01:18:15.159

이거는 단모음이라고
처리하는 거예요.

01:18:15.259 --> 01:18:17.846

그래서 ㅣ 하면 정식
발음은 단모음이고

01:18:17.946 --> 01:18:20.885

짧게 가는 거라면
그게 반모음이고요.

01:18:20.985 --> 01:18:27.591

ㄴ나 ㄷ 역시도 이렇게 짧게 가는 게 있다면
개가 반모음이라고 보면 됩니다.

01:18:27.691 --> 01:18:31.802

그래서 이 반모음 계열은 ㅣ 모음이
이쪽으로 위치를 변화하면서

01:18:31.902 --> 01:18:33.419

뭔가를 만들어내는 소리이고.

01:18:33.519 --> 01:18:35.370

ㄴ, ㄷ 반모음은 ㄴ, ㄷ 쪽에서

01:18:35.470 --> 01:18:38.422

이쪽으로 더 덧붙이면서
내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.

01:18:38.522 --> 01:18:41.201

정리를 해드릴게요.

01:18:41.301 --> 01:18:44.157

ㅣ 반모음은 ㅣ를 짧게
발음하는 거라고 했어요.

01:18:44.257 --> 01:18:49.668

이거는 반달표라고 해서 짧게
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.

01:18:49.768 --> 01:18:51.155

그래서 발음 기호로 따지게 되면

01:18:51.255 --> 01:18:54.119

ㅣ 반모음 같은 경우는 j발음이고

01:18:54.219 --> 01:18:56.607

그다음에 ㅏ, ㅓ 반모음
같은 경우는 w

01:18:56.707 --> 01:18:58.061

이 발음이 나오는 거고요,
발음 기호가.

01:18:58.161 --> 01:19:01.817

지금 이게 단모음 표예요.

01:19:01.917 --> 01:19:04.237

방금 봤던 단모음 표였고.

01:19:04.337 --> 01:19:08.390

이 반모음을 앞서 주고 단모음을
이어서 발음할 겁니다.

01:19:08.490 --> 01:19:11.255

이제 제가 ㅣ를 짧게 준 다음에

01:19:11.355 --> 01:19:14.207

ㅏ를 연속적으로 발음하면
뭐가 나올까요?

01:19:14.307 --> 01:19:18.670

즉 ㅣ 반모음을 넣고
단모음 재료로 ㅏ를 넣어준다면

01:19:18.770 --> 01:19:21.276

ㅣ를 짧게 하고 ㅏ를
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거죠.

01:19:21.376 --> 01:19:24.318

그러면 야, 야, 야
이게 나옵니다.

01:19:24.418 --> 01:19:25.423

해보세요.

01:19:25.523 --> 01:19:27.736

ㅣ를 짧게 연속적으로
ㅏ를 발음하기.

01:19:27.836 --> 01:19:30.581

야, 야, 야가 나오죠.

01:19:30.681 --> 01:19:35.822
그래서 아라는 것이 ㅣ 반모음계열
이중모음이 되는 겁니다.

01:19:35.922 --> 01:19:39.251
또 ㅣ 다음에 ㅓ를 계속
발음하면 어떻게 되죠.

01:19:39.351 --> 01:19:40.707
여, 여, 여

01:19:40.807 --> 01:19:42.198
ㅓ가 발음이 되네요.

01:19:42.298 --> 01:19:45.318
ㅣ 다음에 ㅓ를 발음하면
어떻게 됩니까?

01:19:45.418 --> 01:19:47.100
요, 요, 요

01:19:47.200 --> 01:19:48.438
ㅓ 발음되고요.

01:19:48.538 --> 01:19:52.101
그다음에 ㅣ 다음에 ㅓ를
발음하면 유, 유, 유

01:19:52.201 --> 01:19:55.873
ㅓ 나오고요.

01:19:55.973 --> 01:19:59.813
그다음에 ㅣ 더하기 ㅓ를
발음하면 어떻게 되죠?

01:19:59.913 --> 01:20:02.358
애, 애, 애
ㅓ가 나오네요.

01:20:02.458 --> 01:20:05.296
그다음에 ㅣ 더하기
ㅓ를 발음하면요?

01:20:05.396 --> 01:20:08.254
예, 예, 예
ㅓ가 나옵니다.

01:20:08.354 --> 01:20:12.200
이렇게 해서 ㅣ 반모음을 먼저 주고

01:20:12.300 --> 01:20:15.119
단모음 중에서 어떤 것들을
더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

01:20:15.219 --> 01:20:17.819
이중모음들 6개가 나왔고요.

01:20:17.919 --> 01:20:21.778
그다음에 또 ㅓ, ㅓ는 반모음
같은 경우는 w소리인데

01:20:21.878 --> 01:20:26.921

이거를 먼저 주고 단모음을
연속적으로 발음해볼게요.

01:20:27.021 --> 01:20:29.126

그중에 ㅏ 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20:29.226 --> 01:20:31.678

ㅏ를 짧게 가고 ㅏ를
연속적으로 발음하면

01:20:31.778 --> 01:20:34.563

와, 와, 와
ㅏ가 나오죠.

01:20:34.663 --> 01:20:39.656

다음에 ㅓ를 짧게 하고
ㅓ를 가면 어떻게 되죠?

01:20:39.756 --> 01:20:43.375

왜, 왜, 왜
ㅓ가 나오네요.

01:20:43.475 --> 01:20:46.791

다음 ㅗ를 짧게 발음하고
ㅗ를 발음하게 되면

01:20:46.891 --> 01:20:50.064

워, 워, 워
ㅗ가 나오고요.

01:20:50.164 --> 01:20:53.769

그다음 ㅜ를 짧게 발음하고
ㅜ를 발음하게 되면

01:20:53.869 --> 01:20:59.749

웨, 웨, 웨 웬일이니
할 때 이게 나온다는 거죠.

01:20:59.849 --> 01:21:03.456

이렇게 해서 ㅏ, ㅓ 반모음
계열이 4개가 또 있는데

01:21:03.556 --> 01:21:05.280

지금 이 칸이 비어져있어요.

01:21:05.380 --> 01:21:07.255

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이죠.

01:21:07.355 --> 01:21:11.152

애네들을 상향 이중모음이라고
이야기해놓고

01:21:11.252 --> 01:21:13.426

애는 지금 하향
이중모음이라고 해놨죠.

01:21:13.526 --> 01:21:14.541

이거예요.

01:21:14.641 --> 01:21:18.494

반모음을 먼저 주고 단모음을
주는 방식으로 지금 했는데

01:21:18.594 --> 01:21:22.860

이거는 다 상향이라고
표현하는 거고요.

01:21:22.960 --> 01:21:27.316

반대로 단모음을 앞서 주고 반모음을
뒤에 이어붙이게 되는 방식을

01:21:27.416 --> 01:21:31.201

하향 이중모음이라는 말을 씁니다.

01:21:31.301 --> 01:21:34.544

그러면 이 하향 이중모음으로는
딱 한 가지가 있는데

01:21:34.644 --> 01:21:37.516

그게 ㅡ라는 단모음을 먼저 주고

01:21:37.616 --> 01:21:39.844

반모음 ㅣ를 뒤에 주는 방식이에요.

01:21:39.944 --> 01:21:42.076

그래서 ㅡ를 길게 ㅣ를 짧게.

01:21:42.176 --> 01:21:43.347

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

01:21:43.447 --> 01:21:46.830

의, 의, 의
ㄴ이 나오는 거죠.

01:21:46.930 --> 01:21:52.258

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
하향 이중모음인 ㄴ 조차도

01:21:52.358 --> 01:21:53.797

사실 학자들에 따라서는

01:21:53.897 --> 01:21:57.218

반모음이라는 거를 하나 더 늘리는
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.

01:21:57.318 --> 01:22:00.247

즉 ㅣ 반모음이 아니라 ㄴ 반모음.

01:22:00.347 --> 01:22:04.987

ㄴ 반모음에 ㅣ를 길게 발음하는
식으로 해도 ㄴ이 나온다는 거죠.

01:22:05.087 --> 01:22:06.780

의, 의, 의 이렇게.

01:22:06.880 --> 01:22:10.161

그래서 일부 학자들을
ㄴ 반모음 넣어주자.

01:22:10.261 --> 01:22:11.479

하나 더 추가하자.

01:22:11.579 --> 01:22:15.298
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는 이중모음이
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만 있다.

01:22:15.398 --> 01:22:17.262
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.

01:22:17.362 --> 01:22:19.610
그래서 이거는 또 학교 입장에
따라 가면 될 거고요.

01:22:19.710 --> 01:22:22.774
그러면 이중모음의 개수는
총 몇 개가 나오니까?

01:22:22.874 --> 01:22:24.935
이렇게 ㅣ 반모음 계열.

01:22:25.035 --> 01:22:29.193
상향이든 하향이든 다 합쳐서
이렇게 잡히는 거죠.

01:22:29.293 --> 01:22:32.874
그러면 총 11개가 잡힙니다.

01:22:32.974 --> 01:22:35.803
그래서 국어의 모음
개수는 총 몇 개다?

01:22:35.903 --> 01:22:39.328
합쳐서 단모음 10개,
이중모음 11개.

01:22:39.428 --> 01:22:42.581
반모음은 재료일뿐이지
정식 모음은 아니에요.

01:22:42.681 --> 01:22:47.692
그래서 국어의 분절음은 자음과 모음의
개수는 합쳐서 딱 떨어지죠?

01:22:47.792 --> 01:22:52.548
몇 개 나온다? 40개의 자모를
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겁니다.

01:22:52.648 --> 01:22:55.809
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
음운이라는 것은 소리예요.

01:22:55.909 --> 01:22:59.192
형식을 이야기하는 게
아니라 소리가기 때문에

01:22:59.292 --> 01:23:02.275
그 개수를 따질 때 있어서는
소리 나오는 거를 가지고

01:23:02.375 --> 01:23:04.269
개수를 따진다고
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

01:23:04.369 --> 01:23:07.959

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했던
것은 음운의 정의.

01:23:08.059 --> 01:23:12.007

그다음에 비분절 음운에
대한 설명도 했었고요.

01:23:12.107 --> 01:23:13.955

그다음에 분절 음운이
제일 중요합니다.

01:23:14.055 --> 01:23:17.486

분절 음운에서 자음표, 그리고 모음표를
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.

01:23:17.586 --> 01:23:20.170

특히 조금 더 신경을
많이 써야 되는 거는

01:23:20.270 --> 01:23:26.682

이거예요, 자음표.

01:23:26.782 --> 01:23:31.361

이게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
될 음운 변동에서

01:23:31.461 --> 01:23:33.424

제가 편하게 막 이야기할 거예요.

01:23:33.524 --> 01:23:35.495

파찰음, 마찰음 말 막 할 거야.

01:23:35.595 --> 01:23:39.266

그래서 잘 외우시고 수업에
잘 따라올 수 있도록

01:23:39.366 --> 01:23:40.873

복습해주시기 바랍니다.

01:23:40.973 --> 01:23:42.150

오늘 수고하셨습니다.